

2006-08 |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6-08 | 책임연구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연구관 조 용 관

2006년 장편과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2006. 12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실
연구관 조용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조용관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분포 현황

제1절 북한이탈주민 개념 규정

제2절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과 정부의 지원체계

제1절 하나원의 체제적응교육

제 2절 정부의 정착지원 체계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제1절 정치사상적 적응실태

제2절 경제체제의 적응실태

제3절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제4절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의식구조 형성의 결정요인

제1절 북한교육의 목적

제2절 북한 정치사회화의 매체

제3절 정치사회화의 교육내용

제6장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북한 붕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연말에 발행하는 <세계 전망> 2007년판에서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즉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이라고 보도하였다.¹⁾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과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²⁾ 한편 지난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관계와 동아시아의 변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중포럼 세미나에서 한 중국학자는 “만일의 사태(북한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자”고 제의 하여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³⁾

한편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교육생 314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에서도 북한정권은 위기의 ‘임계점(critical limit)’을 이미 넘어섰으며,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현 체제를 길어야 10년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⁴⁾ 이러한 정세를 반영한 듯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도 북한 붕괴 등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즉 <개념계획(CONPLAN) 5029>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1) 「중앙일보」. 2006. 11. 23.

2) 「동아일보」. 2006 10. 11.

3) 한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핵 문제로 붕괴하지 않더라도 10~15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공연히 전망했다. 「동아일보」. 2006.10. 26.

4)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은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사상, 3대 세습 등 근본이념이 동요하고, 외부 정보 차단, 사상교육, 사회통제 등 ‘강압기제’가 현재보다 약화될 경우 김정일 정권이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동아일보」. 12. 27

5) 한·미 군 당국이 구체화에 착수한 <개념계획(CONPLAN) 5029>는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 측의 계기로 1999년에 만들어졌다. 지난해 국가안보회의(NSC)에 의해 제동이 걸린 <작전계획 5029>도 이 개념계획 5029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內戰) 상황 ▲대량 탈북 난민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등이다. 이 중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대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북한 붕괴에 대한 국내외적 언론의 빈번한 보도는 결국 북한체제가 오래 갈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독일 통일도 그렇게 쉽게 빨리 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⁶⁾ 이는 북한의 붕괴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올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붕괴가 곧 통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은 현재보다 빈번할 것이고, 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동서독 통일이 서독인의 동독인 인성에 대해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실패했다는 주장들은 남북한 통일이후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한 사람들 자체의 특성이 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라 하겠다.⁷⁾ 독일의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북한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행정이나 정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1만 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그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북한붕괴 후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래 동안 억압체제 살아온 북한주민의 의식구조⁹⁾, 즉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

경우에 대한 대책이다.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군특수부대 SEAL 등 특수부대가 투입돼 제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2006. 12. 2.

6) 독일 통일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다.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 18; 손기웅,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북한연구학회보(창간호)』 (북한연구학회, 1997), p. 234.

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2005), pp. 16-25;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p. 63-65.

8) 2003년부터 1년반 동안 KEDO의 북한 주재대표로 있었던 외교관 권태면씨는 KEDO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북한사람들과 말하기를 아예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남과 북한은 외형적으로 같은 것 같으나 실체는 너무 많이 이질화되어 있다. 권태면, 『북한에서 바라 본 북한』 (서울: 증명출판사, 2005), p. 48.

9) 의식구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의식의 됴됨이. 또는 그 짜임새”를 의미 하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로 가치체계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265800&offset=1>(검색일 2006. 12. 17일)

과 남북한 사회통합 시 치안수요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¹⁰⁾

제2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남한사회의 안정과 질서,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의 주민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를 미리 학습하는 과정이자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¹¹⁾ 이는 또 우리 사회가 통일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¹²⁾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적응 연구는 단순한 그들의 사회 부적응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사회 통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인력의 부족, 이론과 연구방법의 부재, 구체성의 결여 등으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¹³⁾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연구자들도 증가되었고, 또 연구주제도 다양해졌으나 대부분 부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에서 학습 받는 교육에 의한 형성된 의식구조에 기인한다고 보고,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아왔으며, 나아가 그것이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북한주민을 면담하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

10) 김현성,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연구』(용인: 치안연구소,1998), pp. 34-35.

11) 박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민족통일연구원,1996), pp. 118-119.

12)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 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상)”, 『북한』, '97년 11월호. p.174.

13) 윤인진,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북한이탈주민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0), pp.125-132

14) 자세한 연구동향은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연구』(성남: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 5-9 참조.

주민의 정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물론 북한주민들과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의식구조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경우,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유사한 형태, 즉 사회주의적 인간에서 자본주의적 인간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¹⁵⁾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특정시점에서 한 번의 연구로 종결되는 횡단적(cross-sectional)연구가 전부이어서, 내면의 세계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정착 기간의 차이에 따른 적응 양상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종단적(longitudinal)연구가 필요하다.¹⁶⁾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함께 비교적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온 필자의 경험¹⁷⁾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도 북한연구가 갖는 자료접근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¹⁸⁾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분포 현황

제1절 북한이탈주민 개념 규정

15) 조용관, “탈북자 전도전략과 북한선교,” 박종화의, 『통일한국포럼』 (인천: 바울, 2006), p. 83.

16)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p. 130.

17) 필자는 교회와 선교단체 활동을 통해 '9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18) 이에 보다 자세한 것은 최완규,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2003), pp. 11-30 참조.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에 정착한 북한주민들을 과거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자유북한인, 탈북자 등 다양하게 지칭되어 왔으며,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그 의미도 다르다.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귀순’의 경우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 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남북 간의 체제경쟁 상황을 반영하였다. ‘자유북한인’의 경우에는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창립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또 ‘탈북자’란 북한을 탈출한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하고,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¹⁹⁾로 개념을 규정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 명칭을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탈북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정부는 탈북자가 지나치게 정치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새터민’이란 용어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나 언론 보도는 ‘어감이 생경하다’ ‘말만 바꾼다고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나’ 등 회의적이다.²⁰⁾ 본 논문에서는 법률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문맥에 따라 ‘탈북남성’, ‘탈북여성’, ‘탈북대학생’ 등의 표현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북난민, 북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20) 「한겨레신문」. 2005. 1. 12.

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실향)유민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난민(refugee)²¹⁾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적국인 북한이나 체류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난민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송환시 처벌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²²⁾

제2절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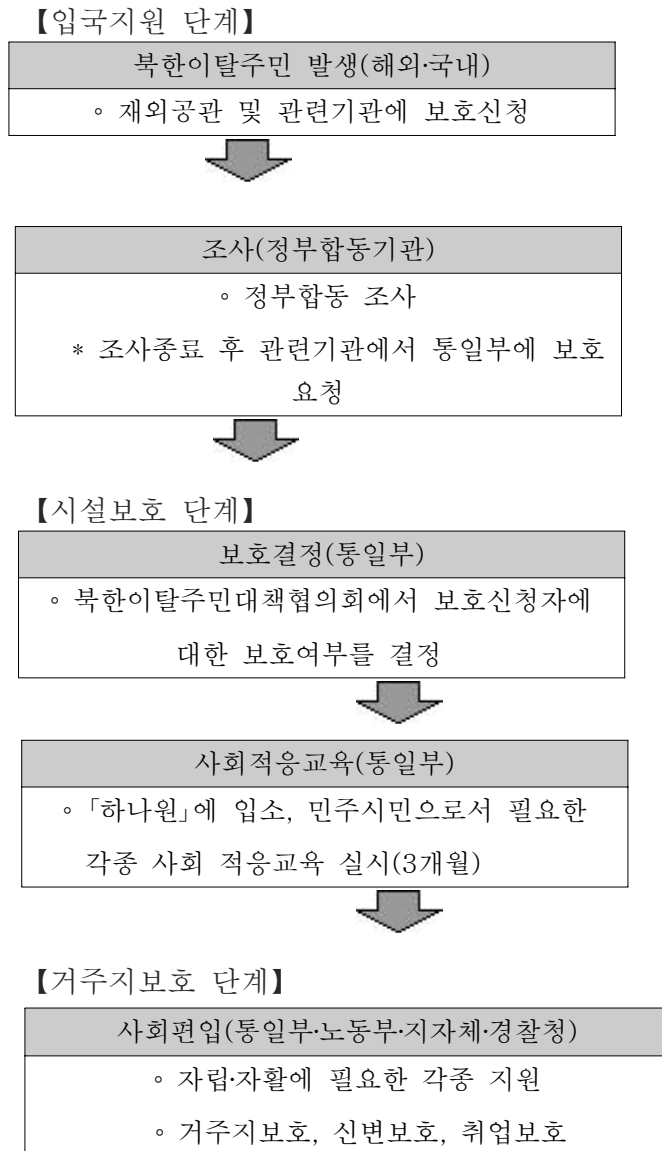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해외 발생자와 국내 발생자로 구분된다. 해외발생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하며, 국내발생자의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및 각급 행정기관장은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보고를 받은 소속 중앙 행정기관장은 이를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발생보고 및 보호신청이 된 자 중에서 일반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특수대상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을 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후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국가정보원·경찰청·국방정보본부·정보사기무사 등 5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대성공사>에 도착해서 1주-3주간 탈북동기의 진위, 입국 경위 등을 판단하는 신분조사과정을 거친다. <대성공사>에서 합동심문이 끝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옮겨, 약 3개월 동안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21)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22) 이우영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0),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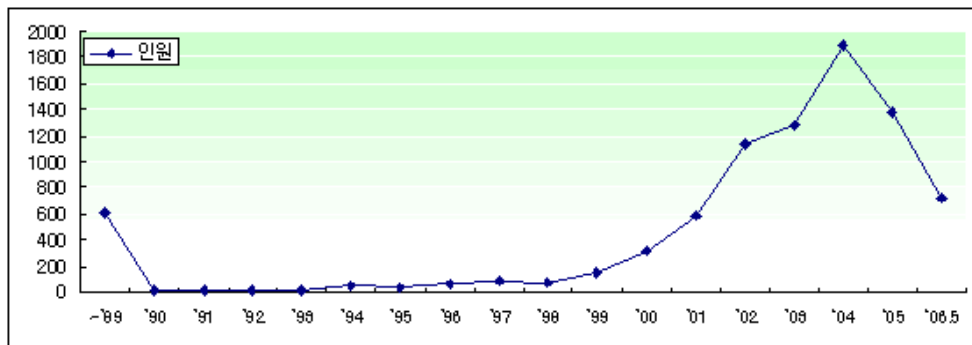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이내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 1,894명, 2005년 1,383명, 2006년 6월말 854명이 입국하여 현재 8,541명 이르며 이중 사망·이민 등이 299명을 제외한 8,242명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²³⁾ (단위:명)

구 분	'89 이전	'90~ '98	'99	'00	'01	'02	'03	'04	'05	'06.6	합계	사망 · 이민 등	국내 거주
인원 (명)	607	340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854	8,541	299	8,242

<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이> (단위:명)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출신성분 차별에 대한 불만,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에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 등 개인적 동기 및 정치적 동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 생활고 등 경제적 요인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개인보다 집단 탈북, 제3국 불법체류의 한계와 재입북시 처벌우려, 그리고 중상류층 이상의 주민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23) 통일부 2006년 국감자료(사회교류문화본부) <http://www.unikorea.go.kr/index.jsp> (검색일 2006. 12. 17).

가 아니라 자녀교육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여 오는 등 그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동반자 입국과 청장년층이 많고(전체 입국자의 70%) 여성의 수가 남성을 추월하여 2005년 현재 66.7%를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동기> 24) (단위: 명)

구분	생활고	처벌우려	체제불만	동반탈북	중국정착	가정불화	기타	계
'00	127	66	55	51	13		3	312
'01	293	73	33	171	7		6	583
'02	607	93	96	258	37	39	9	1,139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	1,125	104	156	401	12	87	9	1,894
'05.6	329	37	50	120	8	21	2	567
합계	3,255	453	510	1,195	123	200	40	5,776

<북한이탈주민연령별현황>25) (단위: 명)

24)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2846_918.HWP.PDF, (검색일 2005.11.26). pp. 42-111참조.

25)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2846_918.HWP.PDF, (검색일 2005.11.26). pp. 42-111참조.

구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00	14	48	76	100	44	19	14	312
'01	43	91	158	172	54	25	40	583
'02	55	154	332	368	129	61	40	1,139
'03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04	69	248	493	644	261	84	95	1,894
'05.6	18	69	148	188	82	25	37	567
합계	245	771	1,549	1,919	730	271	291	5,776

<북한이탈주민성별현황> 26)

(단위: 명)

구분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6	계
남	564	11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6	186	3,189
여	43	12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8	381	3,682
계	607	127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567	6,871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90년대 중반에는 식

26)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2846_918.HWP.PDF, (검색일 2005.11.26). pp. 42-111참조.

량난이 심한 함경도 지역의 탄광노동자나 일반 노동자들이 많이 입국하였으나 '90년대 말부터는 평안도, 양강·자강도, 강원도, 황해도, 평양시·직할시 등 내륙지역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직업도 일반 노동자는 물론 의사, 교수, 연구원, 예술가, 교사, 관리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재북직업별 현황>²⁷⁾ (단위: 명)

구분	관 리 직	전 문 직	예 술 체 육	노 동 자	봉 사 분 야	군인	무 직 부 양	계
'00	18	12	9	158	26	3	86	312
'01	22	26	16	277	43	7	192	583
'02	32	45	18	503	72	11	458	1,139
'03	32	21	13	471	52	8	684	1,281
'04	37	24	15	732	46	11	1,029	1,894
'05.6	4	8	12	213	9	7	314	567
합계	145	136	83	2,354	248	47	2,763	5,776

<북한이탈주민출신지역별 현황>²⁸⁾ (단위: 명)

27)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2846_918.HWP.PDF, (검색일 2005.11.26). pp. 42-111참조.

28)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90/17/pdf/172846_918.HWP.PDF, (검색일 2005.11.26). pp. 42-111참조.

구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도	양강·자강도	강원도	황해도	평양시·직할시	기타	계
'00	176	39	34	14	13	15	20	1	312
'01	380	83	43	30	15	17	11	4	583
'02	755	121	95	51	26	39	43	9	1,139
'03	921	150	82	33	25	31	28	11	1,281
'04	1,410	207	78	57	44	32	57	9	1,894
'05.6	426	46	34	20	8	16	15	2	567
합계	4,068	646	366	205	131	150	174	36	5,776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소정의 조사와 교육이 끝나면 거주지를 배정받게 되는데, '90년 중반까지는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지가 배치되었으나 점차 입국자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서울, 경기 및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국내거주 현황>²⁹⁾ ('06.6.말현재 단위:명)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900	495	421	311	189	363	122	1,484	204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기타	계
인원	168	259	220	192	127	129	37	621	8,242명

* '06.6월말 입국자 8,541명, 사망·이민 299명

29) 통일부 2006년 국감자료(사회교류문화본부)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90년대 이후 2006년 말 현재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약 1만 명에 가깝다. 북한처럼 통제가 심한 나라에서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수가 날로 급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90년대 중반이후의 북한 경제난이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북한은 90년대 중반이후 계속되는 수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최악의 식량난으로 수백만의 아사자가 속출³⁰⁾하는 상황에 이르자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하였다. 북한경제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북한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원조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량난 문제로 북한 당국이 의식주를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자 북한주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 내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먼저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함경도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게 되고 점차 내륙으로 까지 확산된 것이다.

둘째, 중국의 개방화정책과 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외부 정보 유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한중수교와 한러 수교 등으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인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동포(조선족)들을 통해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잘산다는 정보를 듣고 탈북하여 오게 된다.

셋째, 북한사회의 주민 통제력 이완도 탈북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 경제난의 심화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각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이상 정부가 이를 책임 지지 못하는 현실은 그동안 북한당국이 금지해 오던 사경제 부문을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 즉 기존의 계획 경제하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일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일정 부분 북한당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 질수 있었던 것이다.³¹⁾

30) 황장엽, 『黃長燁대전략』 (서울: 월간조선사, 2003), p. 234.

31) 선한승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 6.

넷째,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종전과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90년 말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특히 자녀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북을 감행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³²⁾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정착금도 북한이탈주민을 입국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내 입국자들이 정착금의 일부를 해외에 거주하는 종교단체나 NGO 및 브로커에게 줌으로 인해 이른바 기획 탈북을 시도한 경우도 적지 않다.³³⁾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줄고 있는 것도 금년부터 정부의 정착지원금의 일부가 삭감된 것과 무관치 않다.

32)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통일부 보도자료. 2004. 7. 23), p. 1.

33) 이우영외, 앞의 책, p. 16.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교육과 정부의 지원체계

제1절 하나원의 체제적응교육

<하나원>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이들의 남한 사회적응 문제가 제기되자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착지원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개소하였다.³⁴⁾ 동 법률 시행령 제30조(사회적응교육)는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라며 <하나원> 교육의 목적이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함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원>의 주요기능은 첫째,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둘째,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셋째, 보호대상자의 법적 지위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넷째,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계약직 강사 9명(3명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여 주요 교과목에 대해 전임제교육 실시와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왔다.³⁵⁾ 최근 개정된 프로그램은 3개월(12주)과정으로 기존의 총434시간을 420시간으로 축소하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50시간(11.9%/종전 46시간 11%), 우리사회이해증진 138시간(32.9%/ 종전 175시간 40.3%), 진로지도·직업기초 능력훈련 160시간

34)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 제1항(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7월 <하나원>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35) 통일부는 2005년 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하나원>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공모를 추진하였다. 공모프로그램은 성인반 8개, 청소년반 4개 등 총 12개 교과목으로 참여 민간단체 선정과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공모 심의선정위원회” 개최, 성인반 11개, 청소년반 7개 단체 선정하였다. 「통일부, 2005. 2. 3(목) 보도자료」.

(38.1%/종전 149시간 34.3%), 정착초기 정착지원 72시간(17.1%종전 64시간 14.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은 초기 정서안정을 위한 교육과 문화적 이질감해소 및 역사교육강화, 자동차운전교육 강화, 여성 직업훈련 강화 및 컴퓨터교육 등을 강화시킨 것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⁶⁾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 교육에 대해 그동안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위치 선정문제, 시설운영문제,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프로그램 과정 진행방식 문제, 정착지원 업무의 분담에 대한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³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원>의 교과목과 전문인력 확보문제 등은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변안전을 이유로 경기도 안성 야산에 위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외부활동(지하철타기, 문화탐방 및 산업체 견학 등)에 어려움을 주는 점과 또 외부와의 엄격한 출입통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설운영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대거 입국할 경우는 지금 시설로는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식은 오래 동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3개월이란 짧은 <하나원>의 체계적응 교육에 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미 오랜 기간(평균 3년 11개월) 제3국에 체류³⁸⁾해 있어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상태여서 하루빨리 출소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어 만족할만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사회 일부 사람들은 <하나원> 교육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교육기간을 연장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36) 월~금요일은 1일 7시간교육을 받고 있으며, 토·일, 공휴일은 영화감상, 종교, 체육활동, 시민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록 구성되어 있다.

37) 이금순외,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pp. 51-54.

38) 이금순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003), p. 11.

오래 동안 억압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왔고 또 극심한 식량난과 장기간의 도피 생활 등으로 인성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 서로가 집단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계층,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장기간 함께 있을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³⁹⁾ 또한 북한에서 오래 동안 원치 않은 학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따라서 거주지에 배치된 후 마음이 안정된 다음 자기의 적성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원>에서는 남한에 본적이 없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취직 및 주민등록증발급 등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과정 이수 후 거주할 지역은 보호대상자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임대(국민)주택 공급물량 등을 고려,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분산, 배정하는 일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제 2절 정부의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초기정착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원 및 정착금을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받았다. 정부는 2004년까지 자립·자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착 초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착금은 1인 세대주에 약 2,800만원, 2인부터 부양가족 1인 증가시마다 약 800만원 추가 지급(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총 정착금은 2인세대시 4,555만원, 5년간 분할 지급)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정착금 이외에 사회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취업의욕을 저해한

39) <하나원> 내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 폭력 사고여서, 이에 대한 상벌규정(가장 높은 상점(賞點)은 ‘폭행 등의 사고를 예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10점. 동료 간에 우애를 하거나 청소를 성실히 한 사람에게는 5점의 상점이 주어지며 상점 1점당에는 1천원씩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벌점(罰點) 대상에는 폭행, 흥기소지 및 사용, 성폭행, 성희롱 등에 15~30점까지 주어지며 벌점이 누적되면 교육 과정에서의 혜택을 제한한다.)을 두고 있다. 「동아일보」, 2004 .8 .5 「북한이탈주민교육시설 하나원 들여다보니」.

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⁴⁰⁾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규모·성향의 변화에 맞춘 제도 보완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자립·자활 능력을 저해하는 사회안전망상의 특례를 폐지하고 취학·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교육과정과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착금의 전체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금은 축소하고 자립·자활 노력 및 의지를 제고하는 장려금 신설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작년부터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 기본금은 하향(월 최저임금액 160배 → 100배(하향))하고 직업훈련, 취업상태 등 자립·자활 노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신설(월 최저임금액 0배 → 50배)하였고, 또 취업능력을 상실한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가산금은 상향(월 최저임금액 40배 → 50배)하여 지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 현황>⁴¹⁾ (단위: 만원)

40) 2004년 현재 77.4%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박찬숙의원 발표 국정감사자료」, 2004. 10.5.

41)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구분	항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주 거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특별알선(영세민 보다 우선알선)
	주거지원금	○ 1,000만원(1인 세대), 1,500만원(2인 이상 세대)
취 업	직업훈련	○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 고용주에게 급여의 반액을 24개월간 지원 - 1~12월 : 50만원 한도/13~24월 : 70만원 한도
	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알선('06년내 확대 지정 예정)
사회복지	생계급여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 36만원(1인 세대)~132만원(6인 이상 세대) - 근로능력가구는 사회배출 2년차부터 근로조건 부과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
교육	대학 특례 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 고교 및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 ○ 사립대학은 등록금 반액 국고지원, 반액은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면제 조치
정착도우미	-	○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전국 약1,200명)
자격인정	-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정착지원제도 변화내역>⁴²⁾

구분	기 준	개 선
정착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 160배 ○ 가산금 40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 100배(하향) ○ 장려금 50배(신설) ○ 가산금 50배(상향)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주택까지 지원 ○ 주거지원금 상향 조정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우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과 동등 적용 ○ 취약계층은 특례 유지
고용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신청 및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분기 신청 및 지급
청소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별도 교육 기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추진
대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설정(5년) ○ 지원대학 범위 확대
정착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도우미제 실시 -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안내 및 정보제공

분할 지급금은 매월 총23회 2년에 걸쳐 지급하며, 주거지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관(5년) 종료 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지방 거주자들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정착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2년)‘가’지역(서울)은 해당이 없고, ‘나’지역(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은 주거 지원금의 5%, ‘다’ 지역(‘가’지역 이외의 지역)은 주거 지원금의 10% 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나오게 되면 세대별로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알선 받게 된다.⁴³⁾ 이와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실소요액과

42)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43) 건교부가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03~’12)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영구임대주택알

관련 없이 1,000-1,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2000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2년 동안 매월 일정액의 고용지원금(임금의 1/2범위 내)을 지급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서는 학비전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 편입후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사회 안전망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각종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고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편입되도록 주선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단체에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정 있다.⁴⁴⁾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66억 6천만원, 2001년도 151억, 2002년 210억, 2003년 270억, 2004년 363억, 2005년 349억, 금년에는 약 431억에 달한다. 정부의 이들에 대해 보조금은 주로 기본 생활보호를 위한 정착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근5년간 정착지원금 지원현황>⁴⁵⁾ (단위:백만원)

선에 외에 국민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03년 809세대, '04. 6 현재 543세대 알선/'97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공공임대주택 총 28만호 중 2,765호로 약 1% 점유).

44) 『통일백서』(통일부, 2005), pp. 174-175.

45)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집행내역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계	5,605	15,102	11,299	21,004	16,599	27,099	30,322	36,324	40,668	34,982	43,140	16,874
- 정착지원금	3,929 (115)	12,960 (549)	9,462 (300)	18,993 (1,029)	14,862 (600)	25,379 (1,158)	28,154 (1,029)	34,471 (1,746)	38,561 (1,029)	33,012 (1,352)	40,273 (1,286)	16,089 (1,105)
· 정착금	2,605 (115)	9,410 (549)	7,422 (300)	13,427 (1,029)	10,630 (600)	18,012 (1,158)	22,635 (1,029)	24,538 (1,746)	26,495 (1,850)	24,481 (1,352)	25,914 (1,286)	12,290 (1,015)
· 주거지원금	893 (115)	3,241 (549)	1,624 (300)	5,472 (1,029)	3,927 (600)	7,234 (1,158)	5,461 (1,029)	9,874 (1,746)	11,557 (1,850)	8,009 (1,895)	13,849 (1,286)	3,584 (1,015)
· 보조금	395 (16)	284 (11)	395 (16)	76 (14)	284 (14)	125 (6)	40 (8)	49 (10)	320 (15)	442 (19)	320 (15)	57 (6)
· 정착장려금	-	-	-	-	-	-	-	-	-	-	-	68 (34)
· 중증장애지원	36 (5)	25 (5)	21 (5)	18 (5)	21 (5)	8 (6)	18 (5)	10 (9)	187 (35)	80 (43)	187 (35)	90 (56)
- 사립대학 공납금	180 (90)	193 (97)	248 (99)	233 (102)	248 (99)	306 (165)	496 (165)	574 (420)	758 (251)	662 (279)	1,171 (777)	476 (315)
- 중·고 학자금	2 (23)	2 (21)	2 (23)	2 (21)	3 (23)	1 (13)	2 (21)	1 (22)	2 (21)	1 (9)	2 (21)	0.2 (4)
- 직업훈련 (수당)	108 (50)	149 (217)	216 (120)	430 (494)	-	-	-	-	-	-	-	-
- 특별생 계보 조금	735 (296)	652 (254)	-	-	-	-	-	-	-	-	-	-
- 고용지 원금	480 (80)	1,000 (251)	1,152 (160)	1,127 (350)	1,152 (160)	1,094 (310)	1,336 (160)	944 (269)	1,349 (173)	1,307 (439)	1,656 (230)	3,090 (398)
- 북한 이탈 주민 후원 회 지원	128	128	192	192	307	307	307	307	-	-	-	-
- 자원관 리체계	43	18	27	27	27	12	27	27	-	-	-	-

- *1. 주거지원금에는 지방거주 장려금 포함,
- 2. 정착장려금은 2006년 예산에 미반영 됨.
- 3. ()안의 숫자는 인원

통일연구원 설문조사(2003)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재의 지원수준과 형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설문에 응답한 770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60%가 넘는 460명(60%)이 정부의 지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지원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명(13%)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⁴⁶⁾

2005년 들어 변화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지원 축소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불평이 많다. 또 정착금이 실제로 축소됨에 따라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기존의 정부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의지를 저해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지원금 축소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취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 지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금도 달라 사회주의의 평등의식이 강한 북한이탈주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우리사회의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체계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 앞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숫자가 증가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 이는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북한에서 개인 주택을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46) 이러한 주장은 2005년 이전의 정착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이금순외 (2004), 앞의 책, p. 64.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와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제1절 정치사상적 적응실태

1. 혼란스럽지만 감시 없는 자유로운 체제

북한은 세계 공산국가 중에서 정권수립초기부터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⁴⁷⁾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일성·김정일 지배하의 북한 공산체제는 공산국가들 중에서도 극히 1인 지배의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사회화 유형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중앙 통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까지 북한 공산체제 나름대로의 일정하게 정형화된 인간을 만들어 내는 데 온갖 정책을 펴왔다.⁴⁸⁾ 즉 북한의 모든 교육체계는 김일성·김정일부자에 충직한 인간,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에 맞는 사람을 기르고 있을 뿐이다. 틀에 박힌 교육을 받는 북한주민들은 집권층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며 충성하는 복종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주의적이고 계획경제체제 하에 살아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원주의적이고 시장경제질서가 작동하는 남한사회에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상이한 정치체제상의 차이점에 따른 혼란이라고 하겠다.

사회주의 북한에서 살다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 자유민주주의 남한에서 처음 겪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6년에 입국한 최현실은 남한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루아침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어 보고 알 수 없고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다.⁴⁹⁾

북한이탈주민 이민희씨는 필자에게 “연초가 되면 북한에서는 <신년사

47) <정치사회화> 개념에 대해 학자들 간에 논의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 새로 들어온 개인이 정치정향과 행태의 특징적인 패턴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또 이와 관련되는 <정치교육>은 “한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교육”으로 정의된다.

48) 김갑철, 「북한 공산주의 이론과 실제」(서울: 문우사, 1985), p. 242.

49) “희망의 등대(북한이탈주민 수기)”, <http://www.nkd.or.kr>.

경연대회> 때문에 김일성의 신년사를 외우느냐고 날리예요. 그런데 남한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헛살았다는 생각이 나서 속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그녀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상부에서 억지로 시키고 감독하고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좋다고 했다.

또 탈북한 10대 소녀 박은영은 “남한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야?”라고 물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의 눈치를 안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이는 남한 부모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차조심 해라”는 하는 반면에, 북한의 부모들은 “입 조심해라”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 사회가 얼마나 통제 감시사회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도 비록 이해할 수 없어 다소 혼란스럽지만 북한처럼 남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김일성·김정일부자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 등을 강요받지 않는 남한체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 출신 이현상씨는 아버지가 경찰고위직출신이라 자신도 경찰관이 되어 '90년대 중반 러시아 별목공들을 감시하려 러시아 갔다.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을 돈 받고 놓아주고, 휴가 때 그 받는 돈으로 고급술을 사가지고 평양의 자기 상사에게 받쳤다. 둘이 술을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상사가 당신 문건 보여 줄까?라고 해서 자신의 문건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했다. 자신이 고등중학교 나닐 때, 가장 친한 친구한테 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이 사회는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남한으로 왔다고 했다.⁵⁰⁾ 북한사회는 이씨의 이야기처럼 철저한 감시체제이기 때문에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감시 없는 자유로움에 때로는 놀란다.

서울 양천구 평화통일교회 담임강철호전도사는 '98년도 남한으로 온 지

50) 북한에서는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관한 평정서와 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정성에서 작성하는 신원문건이 있다. 신원문건은 대학진학, 군입대, 노동당입대, 그리고 간부 등용시 참고가 되기 때문에 '토대'가 나쁜 사람은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위 내용은 이현성씨가 2004년 9월 중순 경찰대학 4학년 <경찰보안론> 특강에서 한 이야기이다.

얼마 안 되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느 날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할아버지들이 몇몇이 아파트 앞 쉼터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궁금해서 그들 옆을 지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김대중대통령을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고 한다. 어떻게 국가의 수령을 욕할 수 있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분명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몇분 후 경찰차가 도착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다음 강철호씨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더니, 경찰관이 강철호씨가 북한에서 온 것을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성과 대통령이 평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돌아갔다고 했다. 그 후 그는 경험담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고 했다.⁵¹⁾ 강철호씨의 경험담을 통해서 북한의 정치체제와 남한이 얼마나 다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50대 후반의 북한에서 온 탈북여성은 남한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면서, 정치를 잘 하려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처럼 인민의 심장을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다. 그때 마침 북한의 고위층에 있다고 온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인민의 심장 좋아하네! 김일성·김정일이 인민의 심장을 틀어쥔 것이 아니라 밥줄을 쥐고 있는 거요!”라고 반박했다. 결국 북한이 인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 있는가가 밝혀진 셈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학습 받아 온 시각으로 남한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몇 년 전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NGO 및 각 교회에서 아프간 돕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이다.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오던 북한이탈주민 몇 명이 교회에 나오다 마침 청년들이 아프간 돕기 바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이 굶어 죽어가는 데 북한은 돕지 않고 아프간을 돕느냐고 반문하면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아프간도 돕고 북한도 돕고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51) 2006년 5월27일 <치안정책연구소>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2.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인데 비해 남한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나와 처음 아파트 배정과 정착금을 받아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집에 들러 놓으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신분으로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한번은 북한이탈주민 몇 명을 데리고 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경기도 여주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러시아 별목공출신인 최창호가 숙소에 오지 않아 나가보니, 차안에 있었다. “왜 거기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집사님 타세요.”해서 함께 타고 여주 일대를 드라이브를 했다. 그 때 그는 나에게 “집사님, 이런 차(소나타구형)는 북한에서는 부부장급(차관급)이 타는 차예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제가 타고 있습니다.”라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 후에도 그는 시간만 나면 차를 닦고 기름칠하는 것으로 보았다.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남한에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는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96년 박종철·이우영이 북한이탈주민 41명을 대상으로, “남한사회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63.4%로 제일 높았고, 이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22.0%를 더하면 85.4%에 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사회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매우 심하다”는 응답이 46.3%로 제일 많았고 “다소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3%로 “심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26.8%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자본주의적 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남한의 불평등 상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아울러 대체적으로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

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지나치게 자유로워 때로는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⁵²⁾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권사 한분이 고향을 떠나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며 자기의 교회에 나오는 북한이탈주민 2명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13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권사는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큰 집에서 사는가라는 소리를 듣고, 그 후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기를 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비교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다.

또 필자가 잘 아는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솟는다고 했다. 이 또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 생각된다. 북한처럼 다들 평등한 사회에 살다가 남한에 와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이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박탈감내지 허탈감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의 불평등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북한사회가 사회주의 이념인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 진다.

한편 국군포로 아들로 남한에 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는 정영길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실력을 인정받아 컴퓨터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고 가족 모두가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또 북한의 외교관 출신인 홍순경씨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며, 그 아들은 명문 K대를 나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 아들은 최근 남한 여성을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사람같이 살 수 있는 남한으로 오기를 잘했다고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큰 아들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다.

52) 박종철외, 앞의 논문, p. 66; 이범웅,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교육적응실태 연구,”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정책」 (인천: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0), p.105.

요컨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에서 세뇌 받는 공산주의 사상, 주체사상에 의한 획일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또 북한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던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비록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 올바른 개념이나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북한과 같이 남의 눈치나 감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잘못하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북한사회보다 좋은 사회라는 것을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에서 학습 받아 온 사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들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 경제체제의 적응실태

1. 돈에 대한 2가지 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⁵³⁾ 즉 개인의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집단적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이나 향락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당과 인민을 위하여 집단주의를 강조하여 왔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를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가 김일성이 직접 조직 영도했다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발생했으며 그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었고, 그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⁴⁾ 이처럼 중요한 집단주의로 인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 속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⁵⁵⁾는 인간개조사업을 통하

53) 『백과사전 제3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530.

54)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083.

55) 『김일성저작선집5』(평양: 노동당출판사, 1963), p.466.

여 개인주의를 억제하고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지자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지배적 가치관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북한주민들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당적으로 인정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대학에 입학도 할 수 있고, 웬만한 문제도 뇌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돈의 위력이 강해졌다. 성분이 좋은 핵심계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은 이제 당원이 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돈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돈의 효용성이 높아지자 북한주민들의 돈에 대한 의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합영회사가 설립되고 외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었다고 한다. 남녀 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전에는 정치적 토대, 즉 출신성분, 군복무 여부, 잘 사는가 순위였으나,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얼마나 잘사는가?”가 기준이 되고 있어, 식량을 배급하는 양정 사업소나 급양 관리소 사무원들이 인기라고 한다. 그래서 “잘사는 집 딸”과 친하게 지내라고 권고하고, 배우자감을 평가할 때는 ‘잘 사는가’를 물어본 다음 ‘잘 생겼는가?’를 묻는다고 한다.⁵⁶⁾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겉으로는 집단주의를 더 강하게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주의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침체 때문이라고 한다. “내 것만 있으면 산다, 내가 버덜적거리(아무 일이나 해서) 살아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하다고 한다.⁵⁷⁾ 원래 북한에서는 돈은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으로 교육받았으나 식량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56) 서재진,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2-43.

57) 위의 책, p. 56.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태도는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이중성(兩價性)을 보이고 있다.

김영수·정영국이 '96년 5월 '8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⁵⁸⁾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돈버는 방법에 정신이 쏠려 있고, 매우 인색하며,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는 삶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필자가 '98년 대성공사로부터 일가족을 인계 받아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 임시로 출석하던 교회 사택에 있게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 하나가 그들 가족의 TV출연 사건이다. 당시 필자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99년 1월 29일(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송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인 즉 전날 KBS <추적 60분>에 김필호형제 일가족이 나왔는데, “이 많은 물건들이 어디서 구했는가?”라는 PD의 질문에, 그는 동정을 살려요령으로 “길거리에서 주어와 생활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말이 많다고 했다. 군포경찰서 반계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경찰서에서도 그일 때문에 아침에 혼이 났다고 했다. 정말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교회와 구역식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다. 11시쯤 김형제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좀 나무랐더니 큰소리치면서 교회에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돈(당시 교회에서 매달 50만원씩 지급)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

58) 위의 논문, p. 58.

게 하라고 했다. 교회가 IMF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택시 타고 다니고 술 먹고 바람피우면서 원망을 하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저녁에 원집사님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필호형제가 전화를 해서 나에게 대한 불평을 많이 한 모양이었다. 원집사님 이야기로는 다른 교회 집사들이 TV를 보고 당신네 교회와 당신들이 김씨네를 많이 도와 준 것 같은데, TV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구역식구들도 자기들이 새것을 사주든지 또 집에 있는 것 중 좋은 것을 주었는데 다 주어 쓴다고 이야기하니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⁵⁹⁾

김필호씨 부부는 남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과 동정을 받기 위해 그러한 거짓말을 했으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는 김씨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에서 학습된 사고체제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굶어 죽어 가는데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슨 짓이든 못하겠는가. 문제는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데 있는 것이다. 김씨의 예는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돈에 대한 집착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또한 이들은 도와주어도 쉽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또 나누어주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 이는 북한에서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주민의 집단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결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위양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⁶⁰⁾ 이러한 이기주의는 의지할 곳에 아무도 없는 남한에 와서 더욱 더 심화되어 돈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59) 조용관·김병로, 『북한한걸음 다가서기』(서울: 예수전도단, 2002), pp. 126-127.

60) 서재진, 앞의 책(1999),p.59.

자본주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잘못된 금전관이 도리어 남한사회 정착을 어렵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욕망에 비해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 중에는 김용씨처럼 극히 일부만이 북한음식점을 통해 성공하였으나 대다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정착금을 조기에 날려 보내는 경우도 많다.

한번은 저녁식사를 하는데 우리 식구처럼 자주 집에 오는 북한이탈주민 최철민한테 “집사님, 북한이탈주민이 남대문경찰서에 구속되었다는 9시 뉴스 봤어요. 그 친구 북한선교하기 위해 데리고 와야 합니다.”라며 전화가 왔다. 북한선교라는 말에 꿈쩍없이 그 형제를 데리고 오기로 하였다. 뉴스에 나온 북한이탈주민 김정용은 IMF 때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길가는 행인과 때려 남대문경찰서에 구속이 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송의동지회 부회장과 최철민, 담당형사 그리고 필자, 우리 4명은 추운 겨울에 3시간이나 서울구치소 앞에 기다리다가 그를 데리고 교회로 왔다. 나는 그때 그는 필자에게 “선생님,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시다. 처음 김포공항에 나올 때는 대한민국이 다 내 것 같았습시다. 그런데 큰돈 벌려다가 다 날려 버려 이렇게 됐습시다. 갈 곳도 있을 곳도 없습시다. 모든 것이 끝났습시다.”라고 하소연했다. 얼마간의 돈을 주고 당분간 교회에 있으라고 하고 밤늦게 집으로 왔다. 아침에 전화해보니 밤늦게 술 먹고 와서 떠났다는 것이다. 그후 몇 달 뒤 그의 담당형사한테 전화가 왔다. 그 친구가 부산에서 절도행각을 하다가 붙잡혀 지금 데리고 서울 가는 중이라고. 방광이 좋지 않은 김씨는 성실하게 돈 벌려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결국 폐인이 된 것이다.

2. 고 실업율의 원인과 저소득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적응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생업의 근본

이 되는 취업문제이다. 과거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농협, 은행,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취업시켜주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였다. 하지만 '9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대거 입국하면서부터 이들 취업 문제가 쉽지 않다. 특히 IMF 이후 한국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재벌 그룹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001년 3월 통일부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분포는 연구원 등 전문직이 2.8%, 회사원 등 사무직과 생산직에 종사하는 봉급생활자가 21.7%, 상업 등자영업자가 4.3%, 학생·고령자·주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자가 41.8%이다.⁶¹⁾ 2005년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취업 표본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이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밝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05년도 표본조사〉⁶²⁾

조사년도	주관 단체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실업률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	'97~'04년 국내입국자	70.3%	29.7%
2005	통일연구원	'97~'04년 국내입국자	85.3%	14.7%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직종별 현황〉⁶³⁾

61)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2002. 3.19), <http://www.unikorea.go.kr/>

62)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63)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구분	취업자 수	남	여	단순기술 (%)	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업·영업직 (%)
2001년	251	185(74%)	66(26%)	42.2	12.9	13.3	31.6
2002년	296	219(74%)	77(26%)	44.1	19.2	13.2	22.9
2003년	281	189(67%)	92(33%)	31.5	35	17.4	15.7
2004년	269	163(60%)	106(40%)	39.5	27.6	16.8	16.1
2005년	446	255 (57.2%)	191 (42.8%)	60.5	11.9	12.8	14.8
2006년 2분기	406	226(55.7%)	180(44.3%)	53.9	1.7	4.2	40.1

한편 통일부와 노동부가 지난 10월 4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구직을 희망한 이는 2,712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324명만이 취업해 11.9%의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다.⁶⁴⁾ 이는 앞의 표본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훨씬 높다. 2000년 윤인진의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부적응문제조사 및 적응력 향상방안연구>, 2003년 통일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조사>,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높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태>⁶⁵⁾

구분	2000년 조사		2003년 조사		2004년 조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취업	58	75.3	141	19.1	67	57.3
실업	19	24.7	306	41.5	44	37.6
기타	0	0	290	39.3	6	5.1
전체	77	100.0	737	100.0	117	100.0

64) 「한겨레신문」. 2006. 10. 4.

65) 선한승외, 앞의 책, p. 34.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이 억압된 북한체제에 있다가 자유로운 남한체제에 와서 모두가 마음이 들떠있는 상태에서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짧은 적응교육으로 별다른 전문지식을 갖기 어렵다. 또한 북한에서 학습한 지식들이 남한사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근로의식의 부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근로의지가 부족한 것은 북한체제에서 획득된 행동양식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인간형보다도 피동적이고 순응적인 인간형을 요구한다. 따라서 스스로 적극성을 띠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일에 속한다.⁶⁶⁾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에 남한에 와서 남한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남한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면 기가 질린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송진철씨를 잘 아는 중소기업 사장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켜준 일이 있었다. 얼마 뒤 중소기업사장을 만났더니, 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주었느냐며 불평하였다. 그 이유인 즉, 지방출장이 잦는 이 사장은 편히 쉬기 위해서 기사를 고용하였는데, 길을 잘 몰라서 잠이 좀 자려고 하면 “사장님 좌회전입니까? 우회전입니까”라고 물어와 도대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차를 몰고 가다가 옆 차가 새치기라도 하면, 창문을 열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민망할 정도이고, 운전할 일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하고 쉰다는 것이다. 직장 동료들이 일을 좀 도와 달라고 하면 “나는 운전하러 왔지, 그런 일 하려고 오지 않았다”며, 다른 일을 하지 않아 얼마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왔다. 송형제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북한체제의 생활 습관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66) 윤덕용,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노동력 측면의 통합”, (연세대 2001년 세미나 발표원고), pp. 6-7.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서 불안하다고까지 말한다.

셋째, 획득 가능한 대체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정되어 생활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업에 적만을 걸어 놓으면 월 7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안보 강연이나 간증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또 교회나 종교단체에 나가면 생계보조금을 제공받기도 한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 “네가 나가는 교회는 얼마나 주느냐?”라며 정보 교환을 한다. 교회나온 지 얼마 안된 김주성씨는 “집사님은 한 달에 교회에서 얼마나 받으니까?”라고 필자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아서 돈 받는 사람들은 당신 네 뿐이요. 우리는 돈 내고 다닙니다.”라고 했더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자기들은 한 달에 4번 나오고 50만원 받으니까 조집사는 자기들 보다 자주 나오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종교단체에서 생계보조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의 정착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종교단체에서 지원하는 체제를 상호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행 시스템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도 정부나 종교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와서도 북한식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한주민들이 놀랄 정도의 적은 생활비로 살아갈 수 있다.

평소 잘 아는 북한이탈주민의 집에 초대 받아갔다. 간식이라고 내어놓은 것은 당면을 기름에 튀긴 것이었다. 그것이 무슨 맛이 있겠는가? 이

어 중국 흑룡강 성에서 만든 옥수수 국수가 나왔는데 참으로 먹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그런 국수조차도 북한주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마침 저녁 식사시간이었는데, 쌀밥과 간장 그리고 양파 무침만으로 식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와 동사무소에서 생계보조금을 주는데 왜 이렇게 먹느냐고 물었더니, “북한에서는 이것도 못 먹었습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대부분 남한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먹던 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적은 생계비로 살아간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껴 기업체에서 조직적인 생활을 하기를 꺼려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도 큰 기업체에 취직하기보다는 중소기업체에 들어가 사장님과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 남한사람들과 경쟁에서 이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조직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직을 한다 해도 오래 다니질 못한다.

모든 체제가 북한과 다를 뿐 아니라 남한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외래어를 많이 우리의 직장환경 때문에 외래어 모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동료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겪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고와 생각을 모르는 남한사람들이 이들을 왕따 시켜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성실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한 가수 김용씨와 같이 몇 안 되는 사람을 자기들의 이상적 모델로 삼아, 쉽게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려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다음은 '99년에 입국한 이영광씨의 고백이다.

그 후 닥치는 대로 고생하면서 모은 돈과 가지고 있던 정부 지원금을 합치니 3,000만원 정도 되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친척하나 없는 이 땅에서 힘들게 벌어놓은 그 돈은 어찌보면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 돈을 모으고 난후 얼마 되

지 않아 나는 헛된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나보다 앞서 귀순한 김용씨 같은 사람들이 식당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음식점을 차려 순식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빠져, 수중에 있던 자금을 모두 털어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험 없이 욕심하나로 시작한 식당업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빚더미에 올랐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차는 노릇이었다. 내 땀에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만 했다. 나는 이 와중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

한국도 이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반갑게 맞아줄 기업체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담당 형사가 자기 관할 내에 기업체에 부탁하여 취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사회의 큰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남한 기업들도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그들을 고용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들을 통해 배운 귀중한 경험이 통일이 되었을 때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 명에 가까워 이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제3절 사회·문화적 적응실태

1. 남한주민들의 냉대와 무관심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보다 실제 더 괴로운 것은 남한사람들이 자기들의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이다. 박종철

67) “좌절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진 ‘평양각시’”<http://www.nkd.or.kr>

· 김영윤· 이우영이 '96년 북한이탈주민 41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호의적이다'거나 '동정적이다'는 긍정적 평가가 각각 10.3%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냉담하다'거나 '적대적이고 멸시적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33.3%와 25.6%를 차지함으로써 약 60% 가량이 남한주민들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⁶⁸⁾ 남한 주민들이 '70년대까지만 하여도 북한이탈주민들을 “김일성 치하에서 못 먹고 억눌려 지내온 불쌍한 동포”로 생각하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부모·자식을 버리고 온 배반자,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자, 이방인, 2등 국민, 귀찮은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⁶⁹⁾

필자는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북한이탈주민 한 김영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실감했다. 1998년 2월 28일 교회에서 김영국의 결혼 준비를 한창하고 있는데 장가갈 그 형제가 찾아와 "부탁이 있는데요. 오늘 결혼식에 주례를 서시는 목사님이나 기도하실 장로님께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신부측 부모형제만 알고 아무도 모르거든요.“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그 날 결혼식은 그가 북한에 왔다는 사실을 공포하지 않았고, 신랑의 부모는 당시 군포경찰서 보안과장 부부가 1일 부모 역할을 하였다. 후일 그가 장인될 분을 만나러가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신부의 아버지될 사람이 “자네가 혼자 살자고 부모형제를 버리고 왔는데, 또 형편이 어려우면 처자식을 버리고 갈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하였다. 김영국은 후에 중국에서 부모형제를 만났고, 남한으로 오겠다는 여동생을 많은 돈을 들여

68) 박중철외, 앞의 논문, p.72; 金鎮道, 『北韓離脫住民의 社會適應 프로그램 改善方案』(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99), p. 16.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난 80년 통일부에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80년 당시 탈북이주자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응답자들은 '호의적이다'거나 '동정적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52.7%를 차지했으며, '냉담하다'거나 '적대적이고 멸시적이다'는 부정적 반응은 6.3%에 불과했다. 민병천,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

69) 「한국일보」. 1990년 6월 26일자; 김영수·정영국, 앞의 논문, p. 86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와 자원봉사」(http://yoonin, pe. kr, 2000.5).

서 데리고 왔으며, 현재 이 부부는 귀여운 딸 아들을 낳아 남한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음 신문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냉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지난 98년 4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2000년 9월 한국 땅에 정착한 임모(34.무직.부산시 북구 금곡동)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가출 소녀 2명에게 100여 만원의 금품을 주고 10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남한에서의 외로움에 시달리던 임씨는 먼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이용, 2명의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곧 북한이탈주민에다 직업이 없고 정서차이 등의 이유로 외면당하고 말았다. 임씨는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욕구에 못 이겨 언론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소년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말았다. 임씨는 결국 지난 4월 인터넷 L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이모(16.중3중퇴)양과 김모(16.중3중퇴)양 등 가출청소년 2명에게 한차례에 10만~25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중략...

임씨는 “부산에 살게 되면서 모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동료들이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았지만 탈북자라는 의식을 갖고 차별대우와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한의 여자들과 데이트를 해봤지만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지도 않았고 돈만 많이 쓰게 했을 뿐'이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돈만주면 얼마든지 성을 살수 있다는 그릇된 자본주의사회를 배운 임씨는 결국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한 땅에서 쇠고랑을 차고 경찰신세를 지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남기고 말았다.⁷⁰⁾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뚜렷한 직장이거나 수입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도 남한 여성과 결혼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⁷¹⁾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을 고려

70) “청소년 성매매 북한이탈주민의 눈물”, 「연합뉴스」, 2001. 9. 6.

71) 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연구”, 『통일연구 (제1권 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 150.

해 볼 때, 남한 주한주민들은 이러한 편견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들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자기 정체성 결여

남한에 이주해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이 북한사람인지 아
니면 남한사람인지 자기 정체성(identity)이 결여되어 있다. 전우택의 연
구에 따르면, 남북한이 축구시합을 하는 경우 양측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남한 사회가
자신을 잘 받아주고 있고, 자신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남한
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지만,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남한 사회에서 배척
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이들의 양가 감정적 갈등은 더 커지
는 것으로 보였다.⁷²⁾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관계가 좋지 않거나 남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냉정할 때, 자기 스스로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 필자는 1997년 8월 15일 북한선교회 집사들과 북한이탈주민 등 모
두 19명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궁평리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다.
아침에 맑던 하늘이 도착할 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같
이 간 집사들이 매점 주인한테 텐트를 빌리려 갔었다. 좀 싸게 빌릴 요
령으로 “우리과 같이 온 탈북자들이 있는데 좀 싸게 해 주세요”했더니,
가게 주인이 “당신들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 놈들이
동해 잠수함 내려보낸 놈들인데, 무엇이 이쁘서 싸게 해주세요. 우린 그렇
게 못해요”라고 해, 싸게 커녕 혼만 났다. 그 순간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들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잠수함을 보
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어려우면 그들의 마음도 어려워
지는 것이다. 자기들은 그러한 체제가 싫어서 넘어왔지만 남한주민들은
자기들 편한 데로 그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람이
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72) 전우택,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갈등구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999), pp. 53-54.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으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한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남한사회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남한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기피하고 상처를 주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골치 아픈 남한사람과 교체하기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북한사람들끼리 잘 모인다. 그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⁷³⁾

또 북한이탈주민들은 영어나 외래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남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로 TV, 영화, 비디오나 자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다. 몇 년 전 TV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면 러브호텔에 간다고 해서 사회자 및 시청자들을 당황케 한 적이 있다. 이는 그들이 남한사회를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으로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들의 고민을 함께 이해하며 해결해 줄 참다운 이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우리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고통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다. 그 가족들이 자신들 때문에 강제 수용소로 옮겨가는 등의 큰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었고 우울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⁷⁴⁾ ‘96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장해성씨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래 맞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

73) 趙鏞官, “脫北者 南韓社會 適應에 關 研究”, 『北韓學報(제23집)』(北韓研究所,1998), p. 12.

74) 전우택, 앞의 책, p. 303.

해도 시도 때도 없이 파고들어 가슴 저미는 것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을 저 버린 아픔이었다. 비오는 날이면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우산도 쓰지 않고 인적 끊긴 아파트 주변을 돌고 또 돌았다. 하지만 그건 이미 각오하고 떠나 온 길이 아닌가? 가족생각 외에 또 무슨 외로움? 어차피 홀로 떠날 때 외로울 줄 몰랐더냐? 그렇다면 나한테 제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던가? 영어를 몰라 간판을 보고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갔던 일? 하지만 그것도 몇 번 오락가락 하긴 했지만 어쨌든 물어서라도 찾지 않았던가?

밥 짓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여기서는 기계가 다한다. 설사 내 손으로 하면 어떻단 말인가? 문득 한국에 오기 전 홍콩 이민수용소에 갇혀있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나는 과학연구 부문에 종사하던 북한 사람과 같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귀동냥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우리는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큰 시름을 놓으면서도 새로운 걱정거리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⁷⁵⁾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늘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등 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⁷⁶⁾ 다음은 두고 아내가 북한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김대호씨의 고백이다.

처음 이곳에서의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었다. 설사 이곳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버렸다는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죄의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자 우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내 가족은 황해도 어느 광산으로 추방되었고, 거기서 아내는 자살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슬픈 소식을 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의 삶을 너무도 비참하게 해 놓았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매일같이 방안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75) “끝내 완성하지 못한 원고,” <http://www.nkd.or.kr>

76) 전우택, 앞의 책, pp.303-304.

숨이 막히곤 했다. 때로는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갇아야 할 죄값이 너무 크기에 그 길을 택할 수도 없었다.⁷⁷⁾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잇을 수도, 그렇다고 기억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양가감정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상들이 되었다.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많아지고 있어 가족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가 받은 정착금을 이용하여 중국동포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고, 또 가짜 여권을 만들어 입국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외 제3국을 통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더욱 강해진다.⁷⁸⁾

그러나 이들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오히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 즉 지금은 자신이 어쩔 수 없어 여기에 와 있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그런 가족들의 고통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 현실에 빨리 적응하고, 심리적 방황도 적은 가운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제4절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

77) “망향 시인의 한,” <http://www.nkd.or.kr>

78)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경우는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국경근처가 아닌 내륙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써 이들은 조선족 동포를 동원해도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 규범, 사회적 역할,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쉽게 바꾸어 지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이 북한에서 학습 받아온 교육의 영향이 크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부적응의 상에 나타는 의식구조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고자한다.

1. 다면적 사고의 결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한국사회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체사상만이 최고의 사상으로 학습 받아 왔는데, 중국이나 남한에 와서 보니 주체사상은 우민화 정책일 뿐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 말고 너무나 다양한 사상이 있음을 알고 놀란다. 한 탈북대학생은 학교 시험시간에 주관식 시험이 나오거나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할 때 북한에서 배운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 무척 힘들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외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책에 없는 내용이나 창의적인 것은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⁷⁹⁾

또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와 흑백논리의 교육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한번 옳다고 믿는 것은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필자가 만나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전에 미리 상의하면 쉽게 해결될 일들을 꼭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연락을 한다. 또한 자신들은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화끈한데 남한사람들은 도대체 속을 드러내지 않아 속을 알 수 없어 교활하다고 까지 말한다.

79) 이는 필자가 아는 탈북대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사상이나 세계관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획일적이고 흑백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의 합리적 사고를 오히려 비겁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단간에 어느 하나를 택하면 죽어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당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르고 완수하는 것이 유일한 선이라는 북한의 교육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다.⁸⁰⁾

2. 공격적·비판적 성격구조

인간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불만의 상태가 되며, 욕구불만이 강해지면 공격적인 행동(aggressive behavior)을 하게 된다. 또 공격적인 행동이 격화되면 분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며,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공격적인 행동은 가능한 한 욕구불만이라고 생각되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하여 자기의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욕구불만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상인 동료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도 그 말 자체가 공격적이고 그들끼리 모여도 싸움이 잦다는 것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쪼들리고 뽀박받으니 이제는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북한주민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 말이 거칠고 언성이 높다. 그래서 직장 동료, 친구, 이웃 간에 걸핏하면 싸움질한다는 것이다⁸¹⁾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 가보면,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남한주민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좋지 않게 하면 즉각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 체제적응 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

80) 조영아,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p. 24.

81) 서재진, 앞의 책, p.38.

나 문제가 되고 있다.⁸²⁾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감정의 갈등으로 발전되고 성격적 갈등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즉 욕구불만은 많은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싸움을 자주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북한당국이 어릴 적의 탁아소에서부터 직장생활에 이르기까지 늘 자기비판과 아울러 남을 비판하는 자아비판과 생활 총화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고 늘 감시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⁸³⁾

그리고 북한체제 자체가 김일성·김정일이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김부자 외의 당 간부를 비판하거나 주민들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주민들 상호간의 어느 정도 폭력은 인정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 의식구조의 양면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식구조의 특성은 이중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떤 때에는 아주 순진한 사람처럼 보이나 때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기제는 투사 (projection)기제⁸⁴⁾이다. 대체로 투사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심이

82) <하나원 생활규칙 및 규정위반자 처벌 규정위반내용>

구 분 \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o 교육생 상호 폭언·폭행	14	18	8	14	7	19	15
o 직원에 대한 폭언	2	2	1	4	7	2	·
o 외박복귀 지연·교육장 이탈 등	2	1	2	3	7	6	12
o 부부싸움 등 이성문제	·	·	·	1	1	0	·
o 기타	·	·	·	·	5	0	1
o 입소인원	297	572	1111	1175	1935	1316	1359

<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20)

83) 서재진, 앞의 책(1999), pp. 37-39. 어릴 때부터 「생활총화」란 명목으로 상호 비판을 생활화하였기 때문에 탈북이주자들은 상대방을 칭찬, 격려하기보다는 상호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많고 회의적이며, 사건 이면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 경계심이 강하고 고집스러우며 속임을 당할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을 많이 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사에 의심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며 좀처럼 자신의 속을 내보이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피해의식이 많다. 같은 북한이탈주민들 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잘 신뢰하지 않는다.⁸⁵⁾

필자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처음 만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거짓말이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한 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농장세포에 불과한 자기 아버지를 북한군의 고위 장성이라고 속이며, 북한에서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각이라고 우기거나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군부대에 근무하였으나, 평양냉면 집에 근무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한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속임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남한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남한주민들이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람들과 달리 순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질 경우,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하고 나면 북한이탈주민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⁸⁶⁾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대부분 이중의 도덕적 기준, 또는 제2의 사회의식, 이중적 사고, 분열된 인격, 또는 이중적 도덕률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사람들이 공적 생활에서는 공식규범에 순종하지만, 개인적 일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방식의 도덕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⁸⁷⁾ 즉 사회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은 억압

84) 자아방어 메커니즘을 일컫는 심리학·정신의학 용어로, 투영(投影)이라고도 한다. 무의식작용으로 자신의 자질·욕구·감정 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한 감정이 자기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사물에 있는 듯이 느끼는 작용이다. 즉 타인에게 적의와 연정을 느끼는데,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적의나 연애감정이 자기 속에서는 억제되고 상대에게 투사되어 마치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거나 사랑한다고 느끼는 메커니즘이다.

85) 조영아, 앞의 논문, pp. 20-21.

86) 조용관·김병로, 앞의 책, p. 143.

적인 체제로부터의 정치적 처벌을 피하고 개인주의적 이익을 실현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인 세계에서는 공적 원칙을 따르지만 사적인 세계에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며, 공적세계에서는 복종하지만 사적세계에서는 비판한다는 이른바 면종복배(面從腹背)의 현상인 것이다.⁸⁸⁾

4. 높은 집단주의 의식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이 경향이 강하다. 이는 “오직 개인을 위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승냥이 법칙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주성을 존중하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의 기초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도덕”⁸⁹⁾으로 평가하는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래 동안 이러한 집단주의 교육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사람들이 반미투쟁이나 반정부 데모 그리고 노조가 데모를 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국가가 어려운데 함께 못치지 못하고 저렇게 데모만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과 같은 집단이나 소속 출신과는 유달리 같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의 같은 기수끼리 모인다는지, 아니면 여의도손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자유시민대학> 출신들끼리도 기수끼리 가깝게 지낸다. 그들은 남한사람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종종 비판한다. 또한 대체적으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의식은 우리보다 높다. 이는 북한에서 학습 받아 온 집단주의

87) 서재진, 앞의 책(1999), p. 16.

88) John Harsanyi, "Advances in Understanding Rational Behavior," in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1986) 위의 책, p17 재인용.

89)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54.

교육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을 자신들과 달리 국가나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5. 높은 전통적 유교사상

북한이탈주민들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봉건적 유교사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떤 면에서 남한주민들보다 예의가 바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며 자리도 양보하고 말도 공대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반면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남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⁹⁰⁾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통적 유교사상에 젖어 남존여비사상이 강하다. 여자에게 하대를 하거나 집안일을 거들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북여성들이 남한 남자를 좋아한다. 남한남자들은 북한남자보다 친절하고 여자한테 잘해주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은 탈북여성이 북한남자를 싫어하는 이유를 읊긴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전에는 같은 고향 출신의 남자들을 만나면 거부감부터 들었다.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은 북한에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안다. 북한에서야 사회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에 와서도 예전처럼 행동하는 남자들을 볼 때면 그들이 무척이나 한심해보였다.

한국남자들과 비교해 보면 무뚝뚝하고 여자를 위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북쪽 남자들이 싫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북한 출신 남자들을 회피했고, 한국 남자들에게 대하듯 편하게 대하지 못하였다.

고향 남자들의 모습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진 습관에 그들도 힘들어하지만 중요한 것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화가 난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들의 문제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해야만 내 아내, 내 아이 또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만큼 받

90) 조용관, 앞의 논문(2006), pp. 96-97.

는 것임을 남자들이 인식했으면 좋겠다.⁹¹⁾

이러한 탈북여성의 태도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남자들은 바람둥이라, 한 여자만으로 만족하고 살지 못한다.”라며 자기들과 결혼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한여성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해 결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²⁾ 이 같은 남존여비 사상은 북한 소설이나 방송 등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⁹³⁾

한 탈북남성은 자기말로 남한의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여 살았는데 도저히 정서가 맞지 않아 살 수가 없었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불화의원인은 남편이 매일 북한이탈주민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것 때문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2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그 후 그 남자는 탈북여성과 동거하는데 정서가 동일해서 너무 좋다고 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남한에 와서 북한식으로 하려는 남편과 남한식을 고집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6. 남을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 소유

남한에 사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교육의 목적도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비교적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 즉 김일성·김정일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주체형의 인간 형성에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과 조직을 눈치를 보면 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한국에 와 신학대학을 졸업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들이 비록 남

91) <http://www.dongposarang.or.kr/>(검색일. 2006. 12. 19)

92) 전우택·민성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편, 『북한이탈주민의 삶 -문제와 대책-』(서울: 오름,1996), pp. 33-34.

93) 조용관, “북한의 가정문화정책과 가정윤리”, 『94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제Ⅱ권)』(통일원, 1994), pp. 72-74.

한사회를 잘 몰라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겉과 속이 다른 북한 체제에서 눈치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데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⁹⁴⁾ 또 북한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한 기업인은 “북한사람들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나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처음 북한사람을 만났을 때 정이 많고 순박하다는 첫 인상에 넘어가지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꺾어 보면 순박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무엇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지를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⁹⁵⁾

2003년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북한 미녀응원단 306명이 와서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비를 맞고 있다며, 현수막을 거두고 간 사건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필자가 만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북한사람은 그렇게 하고, 자신이라도 그렇게 행동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남한의 로또에 당선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북한에 가서 영웅대접을 받게 되고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힘 있는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 자아’가 없이 남의 눈치에 맞추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⁹⁶⁾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르고 외모로만 북한이탈주민을 판단하는 경우 서로 상처를 주고받거나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다.⁹⁷⁾

94) 정국용, 『통일전 기독교육 준비와 통일후 기독교 교육』 (서울: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p. 62.

95) 김석향, 앞의 책, p. 87.

96) 마즈박사는 사회주의 국가는 주민들을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하여 공포와 위협을 주로 사용하고, 개인은 공포와 위협에 순응하면서 국가가 베푸는 시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정신적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사회주의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도전정신을 전혀 키우지 않는 “권위주의적 친진난만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위의 책, pp. 41-42.

97) 정국용, 앞의 논문, p. 62.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은 받는데 익숙하고 감사가 부족하다. 이들은 북한에서 배급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데 익숙하고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정부에서 많은 특혜를 주어도 감사하기 보다는 불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회단체나 교회에서 경제적·물질적 도움을 받아도 감사에 인색하다. 그러다보니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던 남한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의식구조 형성의 결정요인

앞장에서 우리는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부적응 실태와 그들의 의식구조를 살펴보았다. 해방직후 남북한 주민은 비록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풍습은 있었지만, 동일한 사상과 문화 체계 속에 살았다.⁹⁸⁾ 그러나 분단이후 60년이 지나면서 서로 너무 많은 부분이 이질화되어,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이질화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각 정치체제는 각기 자기 체제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상이한 사람들이 만나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보여주는 행동양식들의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보여주는 행동양상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학습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사상교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사회화 기관들을 통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1절 북한교육의 목적

사회는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전통의 틀 속에서 끌어들이고, 나아가 한 나라가 이념으로 삼는 바람직한 인간 그리고 국가 발전에 유익한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인간상’이란 정치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⁹⁹⁾ 그 나라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주로 교육이념에 나타난다. 여기서 교육이념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위의 지침 구실을 하는 이상적 준거를 의미한다.¹⁰⁰⁾ 특히 공

98)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 46.

99) 이계희, “北韓의 思想政策과 政治教育,” 『統一問題研究』 (국토통일원, 1989.봄), pp. 235-236.

산주의에서는 자기들이 이상으로 삼는 인간을 주조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기울인다.

공산주의는 교육은 정치에 종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물론 과거의 모든 교육이 지배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비판하였고, 나아가 그들에 의해 노동계급 요구에 맞는 공산주의 교육이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은 철저히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목표는 공산주의적인 인간형성, 즉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 투사를 길러내는데 있다.¹⁰¹⁾

과거 착취계급 사회에 복무한 노예적, 봉건적, 자본주의적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은 그 모두가 착취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 어느 것도 사람들을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 앞에서 무기력하고 인격의 전면적 발전이 심히 억제된 노예적 인간, 기형적 인간을 만들어 통치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는데 이용되었다.

맑스주의의 발생은 교육이론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으며 노동계급의 과학적 교육이론의 시초로 되었다. 맑스, 엥겔스에 의하여 자본주의교육이론이 비판되었으며 교육에 대한 노동계급의 요구로서의 공산주의교육시책에 대한 일련의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레닌은 맑스, 엥겔스의 교육이론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정권을 잡은 후 노동계급이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¹⁰²⁾

1945년 분단이후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1948년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 3년간 소련의 군정을 받았다. 소련 군정기하 북한교육의 목적은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이었으며, 여기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이란 소

100) 박용현, 『가치교육의 변천과 가치의식』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p. 13.

101) 최준영, 『북한소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18.

102)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

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다.¹⁰³⁾ 당시 실시한 교과 과정에는 ‘인민’, ‘사회과학’,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정치교양을 위한 특수과목이 설치되었고, 특히 사회교육기관에서 소련의 국가이익과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주의 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¹⁰⁴⁾

김일성은 정권수립이후에도 한동안 소련의 공산주의의 교육제도와 원리에 따라 학제와 교육행정, 교육이념도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기본노선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1961년 김일성은 7개년 경제개혁(1961-67)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¹⁰⁵⁾

- 1)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 그리고 전면적인 인격발달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한다.
- 2) 교육은 생산노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진행시킨다.
- 3) 기술교육을 강화한다.
- 4) 중등과정에서의 직업기술 교육은 공장대학의 확충으로 그 수준을 높인다.
- 5)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성인교육 기관을 확충한다.
- 6) 문학과 예술교육은 천리마운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민들을 교육시킨다.
- 7) 공산당은 당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에 걸쳐서 지도 감독자의 교육을 강화한다.

또 1961년 9월 김일성이 제4차 당 대회 보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듯이, 북한의 교육학은 1960년대까지도 소련의 교육학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왔다.¹⁰⁶⁾ 그러다가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자신들의 교육제도를

103) 신호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p. 278-279.

104) 위의 책, pp. 281-283.

105) 김동규, 『사회주의교육학』 (서울: 주류, 1988), pp. 392-393.

가리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회주의 교육학이 더욱 완성되었으며, 학교교육 사업에서 주체와 노동계급의 선(線)이 똑바로 서고 교육이 과학이론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라며 ‘우리의 사회주의적 교육학’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의 정치적 위상과 함께 학교교육의 성격을 새롭게 천명하였다.¹⁰⁷⁾

1972년에 북한은 조선로동당규약 제39조에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며,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다방면으로 발전된 인성’ 이니 ‘새로운 형의 인간상’이란 용어가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중심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방면으로 발전된 인성’이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을 뜻한다고 서구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은 당이 요구하는 어떠한 임무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를 뜻하며, 특히 생산노동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지식을 구비한 사람을 뜻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란,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당원의 자격과 이상적인 인간상을 내세운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위한 강력한 투쟁정신
- 2) 혁명전통의 계승발전
- 3) 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 4) 정치 및 실무 수준의 고양
- 5) 당성의 단련과 선봉적 역할
- 6) 대중과의 연계성 강화
- 7) 공산주의적 도덕성과 품성소유
- 8) 노동생산 능력의 제고
- 9) 당 규율의 지연적 수행

106) 위의 책, pp. 387-388.

10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자, 국제문제연구소, 『공산권 자료』(1970. 12, 상권), p. 27 재인용.

10) 비판과 자아비판

11) 당원의 경각심

이러한 교육목표에는 집단주의 정신의 함양이나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증오심의 고조를 통한 애국심의 발로, 노동자와 농민계급에 의한 공산주의 계급혁명 정신의 함양 등이 주요목표로 설정되어 있다.¹⁰⁸⁾ 또 북한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제43조).”라며,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서문에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 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공산주의 새인간 양성을 위한 사상개조를 주장하였다.

북한이 1999년 제정 공포한 교육법 제3조에도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¹⁰⁹⁾라며, 지·덕·체를 고루 갖춘 공산주의 인간교육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는 사회주의 교육학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산주의 건설에 필요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제로 전환되어 가면서 교육의 목적도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주체사상에 입각한 인간형은 어떠한 인간형을 말하는가?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대답에서 “주체사상교양은 우리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

108) 김동규, 앞의 책, pp. 393-394.

109)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관계법령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p. 174.

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입니다.¹¹⁰⁾”라며, 주체사상교양은 ‘주체형 공산주의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김정일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주체사상 교양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상교양’이라며,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며 주체사상의 교양을 통해 수령에게 충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로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¹¹¹⁾”라며 주체사상 교양의 근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 교양에는 당 정책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 도덕교양 등이 포함되며, “당에는 주체사상체계 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 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교양 교양이 있을 수 없다.”¹¹²⁾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요컨대 북한의 교육은 보편적 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사상 및 유일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체교육’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주의 인간형이 인민과 집단을 위해 공산주의에 헌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면, 주체형 인간은 인민과 당과 수령은 하나라는 논리에 의해 ‘수령에 충실한 혁명전사’를 키우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이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기와 효자동이’,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인간형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110) 『김정일선집(제8권)』, p. 432.

111) 『조선대백과사전 19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344.

112) 위의 책, pp. 343-344.

북한정권이 주장하는 주체형의 인간이란 ‘공산주의 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북한의 유일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목적으로 체제유지와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김정일체제의 수호자’를 뜻하는 것이다.¹¹³⁾

제2절 북한 정치사회화의 매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치사회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정치생활의 규범을 익히고 정치질서 속에서의 자기위치와 역할, 즉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¹¹⁴⁾ 정치사회화 기관으로는 가정, 유치원, 탁아소, 학교, 동년배 집단, 직장, 대중매체, 교회, 정당, 군대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그 정치체제가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학습을 시킨다. 특히 이러한 의도된 교육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교육목적, 즉 ‘주체형 인간’ 형성을 위해 모든 정치사회화 기관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탁아소·유치원

교육학에서 초기 정치사회화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공산주의 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여 왔다. 마르크스주의 교육학에서 강조된 초기 교육론은 결국 가정교육 또는 취학 전 교육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소련의 경우 1918년 1월에 있었던 <교육인민위원회 의사와 보건부의 성명>에서는, “어린이는 우리의 장래이다. 우리들은 어린이들의 손에 인류를 위한 투쟁임무를 떠 넘겨야 한다.”라는 내용으로써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련의 유명한 교육학자 마카렌코는 “출생부터 5세까지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여 평생교육의 90%는 여기서 결정된다.<부모의 자녀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렇게 공산주의사회가 초기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부녀자들을 가정

113) 신호숙, “교육제도의 형식과 내용: 사회주의 인간형에서 주체형 인간양성으로,” 박호성·홍원표, 『북한사회의 이해』(서울: 인간사랑, 2002), p. 238; 신호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격과 과제,” 『통일정책연구(15권 1호)』(통일연구원, 2006), p. 143.

114) 김충남,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서울: 법문사, 1982), p. 11.

으로부터 사회로 동원시켜 집단노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유와, 또한 집단주의 정신을 통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입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효과적이라는 학습심리적인 원인에서라 하겠다.¹¹⁵⁾

북한에서도 조기의 정치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교육체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保育)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율생활에 비롯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 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 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왔다.
116)

북한은 모든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는 원칙¹¹⁷⁾하에 유아교육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중요한 임무는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울뿐 아니라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어려서부터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 품성을 지니고 훌륭히 자라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유치원교육에서는 학교 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¹¹⁸⁾

북한의 탁아소는 생후 1개월에서 부터 만4세가 될 때까지 6개 과정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은 2단계로 나누어 낮은 반 1년과 높은 반 1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은 탁아소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소위 교양사업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교육의 작업이 계속된다. 탁아소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언어교육(1년 6개월~2년)·보행법·노래·

115) 신호숙, 앞의 논문(2006), p. 146.

116)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김동규, 앞의 책, p. 504.

117) 위의 책, p. 504.

11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 115.

유희 등을 통해 조직·규율생활에 대한 순종심, 집단주의 정신,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는 정신을 주입받고 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찬양하도록 하며, 노래는 주로 혁명가요를, 유희는 벽에 걸린 김일성의 사진을 보면서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¹¹⁹⁾

유치원은 만4세부터 만5세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1976년 4월 29일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6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교육의 목적은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데 두고 배경은 어린이들이 봉건적인 사상과 관습인 조상과 부모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심, 가문과 족벌 중시에 물드는 것을 막으면서 조기집단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주체사상에 충실한 인간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¹²⁰⁾ 유치원에서 노래는 주로 혁명가요, 춤·놀이는 전쟁놀이 등을 하는데, 이를 통해 탁아소에서 익힌 조직규율생활, 집단주의, 김일성에 대한 복종심과 공경심을 더욱 몸에 배이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를 시킨다.¹²¹⁾

2. 가정

가정은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동시에 전통과 관습을 습득·전수하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집단으로 다른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제도는 전통사회나 현대사회를

119) 필자가 최근에 본 비디오(개성근처 사리원지역유치원)에도 아이들이 식사 전에 손을 들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었다.

120) 차중환, 『북한의 교육정책과 명문대학』(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2), p. 64.

121) 박문갑, 『북한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 58.

막론하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통치하는 담당자들은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치권력의 주체들은 항상 가정을 사회나 국가 경영의 기본단위로 간주하여 그들의 통치이념을 가정이라고 하는 정치사회화 기관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내면화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가정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사회가 이념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관련된 사회적 기능도 아울러 수행하는 사회적 제도이다.¹²²⁾

김일성도 일찍부터 공산혁명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교육테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교육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형들은 사회정치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한 마디 한마디의 말과 하나 하나의 행동이 다 이들 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가정에서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¹²³⁾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로 나가서 말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할 것을 주로 가르쳤으나 ‘90년 중반이후는 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누가 죽고, 누가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¹²⁴⁾

3. 학교

유치원을 마치면 곧 4년제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이어 고등중학교(6년)를 거쳐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소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 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공산주의도덕, 수학, 국

122) 조용관, 『중국혁명과 가정윤리』(서울: 고려원, 1998), p. 34.

123) 김동규, 앞의 책, p. 497.

124) 함경도 회령에서 유치원교사를 하던 온 이모씨(44세)의 증언.

어, 자연, 위생, 음악, 체육, 도화공작 등 11과목을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다. 주당 수업은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의 순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우상화 관련 과목이 각각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화 관련 과목은 국어, 수학 다음으로 교육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또한 전 학년에 매주 1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공산주의도덕』 교과서의 주요 지도내용에도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김정숙·김형직·강반석 등 일가의 우상화가 포함된다.¹²⁵⁾

또 고등중학교 6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혁명활동’,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사회주의도덕’, ‘현행 당 정책’,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실습 등 23개 과목을 배운다.¹²⁶⁾

또한 ‘김일성·김정일 혁명 활동’은 고등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주당 각각 1시간씩 배우며,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를 주당 2시간씩 배운다. 김정숙혁명역사는 중학교 4학년에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이로써 고등중학교 고학년(4~6년) 과정에서는 김일성 일가우상화관련 과목에 대한 시간할애가 저학년(1~3년)에서보다 2배 이상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전 학년에 걸쳐 매주 1시간씩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도덕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¹²⁷⁾

4. 사회단체(소년단, 청년동맹, 노동당, 직맹, 농근맹)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획일화를 도모하고 전 주민을 계층별, 직업분야별로 묶어 사상을 주입,

125)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7-18.

126) 위의 책, p. 20.

127) 위의 책, p. 20.

조직적으로 재사회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 주민은 일생동안 동질의 통제 속에서 살게 된다. 즉 계층별(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여맹), 직업조직별(직맹·농근맹·문예총), 당·군대 등 정치사회화 장치 속에 살게 만든다. 북한에서의 각종 조직, 단체들은 하나같이 ‘정치조직’이며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한다.¹²⁸⁾

소년단은 소학교 2학년이 되면 모두 입단하게 되지만 한꺼번에 입단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단 입단식은 북한에서 최고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김정일 생일)과 4월 15일(김일성생일) 그리고 소년단 창건기념일(6월 6일)인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난 뒤에는 학교 소년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실천하는 등 조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은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이기, 과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과업의 예이다. 또한 소년단의 날인 토요일에는 분열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한다.¹²⁹⁾

만 14세가 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약칭: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에 가입한 학생들은 시(군구역)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노동당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당은 국가보다도 상위 조직으로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려고 하지만, 소수의 선택된 주민만이 당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¹³⁰⁾

노동당원은 직장과 지역에 따라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당원으로서 활동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 말

128) 신광민, 『북한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p. 53.

129) 『북한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pp. 232-234.

130) 위의 책, p. 234.

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수행의 최소단위이다. 노동당 가입자는 청년동맹에서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며, 입당하지 못하면 30세까지 청년동맹에서 조직생활을 지속한다. 30세가 되어도 입당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는 직업총동맹(직총)으로 농민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직업총동맹 산하에는 세부 직업별로 직업동맹(직맹)이 구성되어 있다.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한 후 직장에 나가지 않는 전업주부가 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민주여성동맹(여맹)으로 소속을 옮긴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조직생활이란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요일 저녁 ‘문화의 날 행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강연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과 당원 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다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의 정책과 북한최고지도자이 ‘교시와 혁명로작’ 등을 공부하게 된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생활총화는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고하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차는 모임으로서, 대체로 1주일에 한번씩(주총화) 조직별로 개최한다. 생활총화를 할 때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교시’ 및 ‘말씀’을 근거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한다.¹³¹⁾ 이와 같이 북한주민들은 국가가 정해 놓은 철저한 조직생활에서 떠나 살수가 없다.

5. 군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대는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북

131) 위의 책, pp. 234-236.

한을 경우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장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사회 주요한 정치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2003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 <군사복무 법>을 제정하여, 그동안 지원제를, 대상 모두가 입영하는 징병제로 바꾸고, 복무기간도 남자 13년에서 10년, 여자 10년에서 7년으로 3년씩 단축했다. 또 징집 연령층을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조정했다.¹³²⁾

북한군대는 군복무기간 중장기적인 집체생활을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정치사회화 시킴으로서 획일화 시키고, 혁명목표 관철과 체제유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인 통제 하에 반복적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과 절대적인 충성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정신’, 또 당의 대한 복종과 충성, 그리고 ‘총폭탄정신’과 ‘자폭정신’을 높이고, 나아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개심과 호전성 교육을 주입식·강압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다.¹³³⁾

북한군의 주입식 강압식 교육에 의해 수동적으로 길들여져 창의성이 거의 없고 경직되어 있다. 또한 당의 혁명목표 관철과 체제 유지를 위한 타율적인 조직으로서 군내 감시조직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놓여 있으며 반복적인 정치사상교육으로 김정일에게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된 교육으로 인해 북한 인들은 욕구불만과 불만의식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¹³⁴⁾

6. 매스컴

언론매체도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기관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제4부라고 할 정도로 언론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나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은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132) 북한군은 원래 복무기간은 10년이었으나 '96년 10월부터 군복무조례를 고쳐 최장 13년까지 복무토록 하였다. 신광민, 앞의 논문, p. 64.

133) 위의 논문, pp. 86-90.

134) 위의 논문, pp. 93-94.

국가가 모든 매스미디어를 독점하고 있는 북한의 언론은 3가지 원칙 즉 첫째 주체의 원칙, 둘째 당의 유일적 지도하에 진행시키는 원칙, 셋째 종자를 올바르게 틀어쥐고 속도전을 전개하는 원칙이다. 먼저 주체의 원칙을 근본 초석으로 하고 당의 지도체제를 세운다는 것은, 출판보도 선전에 있어서 공산주의적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담보가 된다.

여기서 주체의 원칙이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한다는 것이며, 당의 유일지도 원칙은 조선로동당의 철저한 지도하에 언론을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출판 보도활동에 있어서 당 중앙의 유일관리제의 원칙을 관철하고 출판보도 부문의 활동가가 당에 의거하여 모든 활동을 일으키고 당의 의도와 당의 가르침을 무조건 접수하여 철저하게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당 지도 원칙이 북한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주체의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³⁵⁾

한편 종자론 및 속도전의 원칙에서 종자를 똑바로 틀어쥐는다고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본 핵을 틀어쥐는다고 하는 것이고 속도전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 최단기간 내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최상을 성취해내는 방침을 이야기 한다고 하겠다.¹³⁶⁾ 이러한 원칙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 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정무원 산하의 출판총국이다. 특히 당의 선전선동부는 각 언론매체가 당과 정부의 지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감독, 통제한다.¹³⁷⁾ 이와 같이 북한의 매스미디어는 민주주의 언론의 본래 기능인 비판기능은 찾아볼 수 없고, 당의 철저한 통제 하에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와 주체사상의 고취, 대중동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제3절 정치사회화의 교육내용

135) 김영주·이범수,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서울: 한울, 1994), pp. 75-81.

136) 김영주·이범수, 『현대북한 언론의 이해』(서울: 한울, 1999), pp. 113-120.

137) 김창희,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p. 290.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해 다양한 정치사회화 기관들을 통해 많은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정치사상교육이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으며,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¹³⁸⁾라고 하였다. 김일성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사업인 동시에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³⁹⁾

이러한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치원에서부터 군대, 언론매체 등의 정치사회화 기관들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북한체제와 김일성·김정일에게 절대 충성하는 인간, 즉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북한의 정치사회화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치사상교육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일사상체계의 정당화

일반적으로 모든 공산주의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둔 하나의 공식 또는 관계적 통치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체제 성원 모두가 지지하도록 강요된 통치이데올로기는 사회체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한다. 그것은 체제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결정해 주는 지도이념으로서,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변화시켜 가는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체제성원 모두의 행위규범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의 선악을 가려주는 종교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렇듯 공산주의 체제의 경우, 다른 자유주의체제와는 달리 생존과 발전을 지향함에

138) 김일성, “전반적으로 11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30』, pp. 247-248.

139) 김일성,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1』, pp. 81-82.

있어서 통치이데올로기의 비중은 지대한 것이다.¹⁴⁰⁾

북한은 정권초기에 통치이데올로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을 채택하였으나,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그에 의해서 주체사상을 절대화·관념론화하는 일환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강조하고,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켰다.¹⁴¹⁾ 이와 같이, 북한은 절대 권력자인 수령(김정일)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되어 있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유일체제이다.¹⁴²⁾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당과 전체 사회의 유일사상으로 확립한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상체계의 전 면모는 김일성과 그의 사상에 대한 절대 충실성을 규정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10대원칙>은 김정일이 1974년 4월에 발표한 것으로 ①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할 것, ② 김일성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 것, ③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할 것, ④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할 것, ⑤ 김일성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 ⑥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할 것, ⑦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할 것, ⑧ 김일성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김일성에게 충성으로 보답할 것, ⑨ 김일성의 유일영도 밑에 한결 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을 세울 것, ⑩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해 나갈 것 등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지침과 같은 10계명과 유사하다.¹⁴³⁾

북한 또 이 시기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목표로 유일사상과 주

140) 梁好民,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李相禹외, 앞의 책, pp. 64-65.

141) 위의 논문, p. 64.

142)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210.

143) 이종석, 위의 책, p. 211.

체사상 무장을 강화하였다. ‘주체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 취학 전 아동기부터 군대 및 언론매체 등 다양한 정치사회화 기관들을 통해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등급별, 조직별로 나누어 김부자의 교시와 말씀학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인민을 하나의 사상, 즉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무장화된 참 공산주의 혁명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⁴⁴⁾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조선혁명은 20세기 70년대에 이미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는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¹⁴⁵⁾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⁶⁾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철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불멸의 철학이며, 김정일이 이를 더욱 계승·발전시켰다며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철학은 우리 혁명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철학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우리시대의 로동계급의 불멸의 철학이며 인류의 철학발전에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이다.¹⁴⁷⁾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주체의 사회역사관 이전의 사회역사관들은 물질이 1차적이나 의식이 1차적이나 하는 철학적 논쟁의 필연적 연장으로서 인류 역사를 객관주의적으로 혹은 주

144) 金亨植, 「金日成과 金正日의 體制維持 政策에 관한 比較」(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82-83.

145) 梁龍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위대한 혁명사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철학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p. 54.

146) 金國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발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위대한 공산주의 강령,” 『근로자』, 1991년 제6호, p. 33.

147)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 9.

관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지난 시기 사회역사관의 이 같은 한계성이 극복되고 역사발전에서 민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힌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 역사관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¹⁴⁸⁾

북한은 또 김정일이 1982년 김일성 탄생 70돌 기념으로 북한의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는 그동안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해석권을 김일성의 1인 독점하였으나, 김정일의 논문 발표이후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독점권이 김정일에게 세습된 것을 뜻한다.¹⁴⁹⁾

이와 같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하위 사상에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치달아 그것을 대체하는 지도사상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특히 사상 해석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서 이론화, 체계화의 길을 밟아 왔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와서는 현실을 규정하는 사상 이론으로까지 격상되었다.¹⁵⁰⁾ 또한 김정일이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하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교조화·절대화된 통치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김부자 우상화 교육

어떤 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다른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 폐쇄적으로 되어 교조화되거나 우상화되기 쉽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절대권력에 대해 어떠한 비판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언급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표현은 최고의 존칭과 고딕활자를 사용이다. 예컨대 사진 화보설명을 담은 아트지 지면에서 김일성 석자는 반드시 고딕 활자로 표기하여 신성시하고 있다.

148) “김일성주의 강좌: 사회역사에 대한 고찰,” 「민민전방송」, 2002. 3. 21.

149) 조용관, “북한체제 특이성의 역사문화적 가능조건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 교조화와 우상화·세습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6권 2호>』(북한연구학회, 2002), p. 152.

150) 이종석, 앞의 책, pp. 182-18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시었다.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성과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보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강철 같은 불패의 대오로 더욱 단련 강화하였다는 것이다.¹⁵¹⁾

북한에서 발간되는 각종 서적이나 신문, 심지어 학술논문까지도 반드시 김일성·김정일의 어록이 들어가며, 김부자의 이름 앞에는 몇 줄에 한번씩 ‘위대한 수령’, ‘경애하는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등의 수식어가 삽입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 당들의 투쟁경험을 조선의 실정과 결부하여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당원들에게 불어넣는 경향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9권, 260페이지)¹⁵²⁾

《수령님께서 조상전래의 인정과 성량성, 미덕을 조선민족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었습니다》……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인덕의 정치를 베푸시고 계신다.¹⁵³⁾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이러한 표기 관행은 왕조시대에 왕이나 중국 황제의 이름을 휘(諱) 하던 습관, 왕이나 왕명과 관계되는 기사가 나올 때 반드시 상단일자(上段一字)를 떼어 쓰던 지식인들의 습관을 연상시킨다. 수령은 보통의 인간이 아닌, 과거의 왕에 준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이러한 독특한 표기방식을 낳았다고 본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김일성 우상화작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197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자주 사용되고 있다.¹⁵⁴⁾ 심지어 북한에서 발간한 『철학사전』은 마르크

151) 『고난의 행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p. 270.

152) 『위대한 김일성동지혁명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39.

153) 『로동신문』, 1993. 1. 28.

154) 崔載賢, “北韓社會理念속의 傳統的要素,” 『亞細亞 傳統社會에 미친 共產主義의 影響』(서울:

스-레닌주의 철학의 해석권을 김일성 1인이 독점할 정도로 소비니즘화되고 1인 독점화되어 있다. 그 증거로 사전 권두에 ‘김일성의 생애와 사상’ 해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저작명이나 연설 제목을 모조리 ‘올림말’로 망라했고, 어휘 해설은 모두 김일성의 연설에서 인용하고 그 인용 부분은 특별히 고딕활자로 강조하는 있는 점이다.¹⁵⁵⁾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김일성·김정일부자의 이상화와 가계의 이상화로 발전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이상화 학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도하고 있는 김일성 부자와 가계의 이상화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김정일은 먼저 자신들의 가계를 이상화하였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증조부로 부터 조부, 부모, 외가, 모두를 우리나라 근대혁명운동과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자’, ‘혁명가’ 등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가계 전체를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¹⁵⁶⁾으로 기술하면서 이상화하고 있다.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고종 3년(1886년)에 미국상선 제너럴 셔어만(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 이르러 통상을 요구하다가, 평양 군민들로부터 화공을 당하여 불타 소멸되었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미국해적선 《샤만》호를 소탕하기 위한 투쟁에서 김응우선생님은 실로 우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이 싸움마당에 펼쳐나선 인민들은 무비의 영웅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¹⁵⁷⁾

그밖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1894-1926)을 ‘민족해방운동’의 선각자,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으며, 그의 숙부인 김형권과 더불어 ‘1917년 당시 최대의 반일지하조직’이라고 날조된 <조선국민회>를 주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국립정치대학국제관계연구중심, 1987), p. 7; 또 이러한 표현 양식은 기독교 문헌들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55)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연구』(서울: 나남, 1993), p. 78.

15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3.

157) 박득준편집 『근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18-19.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동북만주에서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⁵⁸⁾ 또한 김일성의 모 강반석은 ‘혁명의 아내’로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전환기에 부 김형직과 함께 각종 항일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김일성을 낳고 키운 조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특히 1926년에 그녀가 반일(反日)부녀회를 조직하는 등 공산주의 여성운동의 기원을 열어 놓았다고 선전하고 있다¹⁵⁹⁾.

두 번째, 김일성·김정일은 자신들 스스로를 우상화·신격화하고 있다. 김일성은 태어날 때부터 범인들과는 달리 큰 별이 나타났으며¹⁶⁰⁾,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 출중할 뿐 아니라 백두산 인근에서 항일빨치산운동을 할 때에는 신처럼 활동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 정기를 타고나시고 하늘의 별을 부리시는 분이시기에 천지조화를 다 알고 계신대.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치실 때는 장군별을 하늘에 띄워 놓으시고 적들을 몽땅 골짜기에 몰아넣고 잡으시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놈들과 싸워서 죽게도 하신다구 그러더라. 그리고 뭐 도망치는 놈들은 길을 잃고 제자리에서 헤매다가 돌로 굳어져 죽게도 만드신대.¹⁶¹⁾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4월 15일을 민족의 최대 명절로 정하고 이를 <태양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민족 중 오직 북한만이 태양절을 모시게 되어 큰 은혜라고 김일성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김일성민족’으로 묘사하는 등 김일성 우상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158) 『백과전서(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727-728.

159) 『민족의 영웅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 (평양: 노동자신문사, 1970), p. 29.

160) 북한에서 발간된 책에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태어날 때쯤에 백두산에 큰 별이 솟았는데, 일본천황과 신하들이 이를 보고 놀랐다고 미화하고 있다. 『김일성전설집』 (서울: 백수사, 1996), pp.18-19. 북한의 4.15 문학창작단은 1987년 김일성과 김정일의 전설집인 『백두산전설집』 (북한 문예출판사간행)을 발간하였다.

161) 『민족의 영웅 인민의 수령 김일성원수』, pp. 23-24.

오늘은 4월15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의 봄명절,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이아침, 인민의 마음은 아버지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성지로 달려갑니다.… 태양절은 주체의 태양을 모신 나라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인류의 태양을 받드는 인민만이 전통적인 최대의 경사로 기념할 수 있는 명절입니다.¹⁶²⁾

태양절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 우리나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독립되고 융성번영하게 된 **김일성**조선이며 우리 민족은 수령님의 손길에서 구원되고 존엄을 떨치게 된 **김일성**민족이며…¹⁶³⁾

북한은 김일성 못지않게 그의 아들인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에서는 4년 동안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어린시절> 과목으로 152시간을 학습하도록 되어있고, 고등중학교에서 6년 동안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혁명활동> 112시간 및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혁명력사> 110시간을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국어·수학을 비롯한 거의 전 과목에 걸쳐 김정일우상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¹⁶⁴⁾

아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백두산에 탄생하시었나니
백두산
거기서 조선의 별이 뜨고
거기서 조선의 행복
조선의 미래가 시작되었다.(고등중학교 3학년 국어 제5과 『해돋이』, 16쪽)¹⁶⁵⁾

특히 북한은 1996년 ‘교육과정안’을 개정하였는데, 개정전 인민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162) “ 민족 최대의 명절 태양절”, 「중앙방송」, 1998. 4. 15 방송.

163) 「로동신문」. 1998. 4. 15 사설.

164) 『김정일우상화 사례집』(통일원, 1992), p. 19.

165) 위의 책, p. 20.

가 개정 후 인민학교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교과로 변경되었다. 수식어가 바뀐 것이다. 즉 ‘경애하는’ 이 ‘위대한’으로, ‘원수님’이 ‘대원수님’이라는 극존칭의 수식어가 사용된 것이다.

이는 ‘90년대 초 김정일이 공화국의 원수로 추대되고 그에 따라 김일성이 자연히 대원수로 승급되었기 때문에 교과 명 역시 거기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김일성이 북한이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임을 직접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김일성 일가의 이름>¹⁶⁶⁾

핵심인물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비고
학교급 및 학년					
인민학교	1	4	7	1	
	2	7	9		
	3	6	10	1	
	4	10	12		
	계	27(40.3%)	38(56.7%)	2(3.0%)	
고등중학교	1	14	15(1)		김정일을 ‘광명성’이라 언급함
	2	7	25		
	3	7	31		과외 일기(김일성2, 김정일3, 김정숙3) 명언(김일성3, 김정일17)
	4	4	21		과외읽기(김일성1, 김정일1) 명언(김정일15)
	5	9	27		과외읽기(김일성7, 김정일5) 명언(김일성10, 김정일10)
	6	8	10		
	계	48(27.9%)	124(62.1%)		

합계	75 (31.4%)	162(67.8 %)	2(0.8%)	
----	---------------	----------------	---------	--

학년별로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1학년과 6학년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2배미만이 등장하는 반면 나머지 학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 이는 김정일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 비중을 두어 강조함으로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도덕>교과서에서 김일성보다 김정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술함으로써 김정일이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⁷⁾

또 김정일 관련 교과명도, 개정 전 인민학교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 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인민학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로 변경되었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바뀐 것이다. 즉 ‘친애하는’ 이 ‘위대한’으로, ‘동지’는 ‘원수님’으로, ‘지도자’는 ‘령도자’로 개칭되었다. 이는 생전의 김일성에게 사용하던 수식어이다.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김정일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존재이며, 김정일은 생전의 김일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현재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일은 자신의 생모인 김정숙과 관련된 교과와 컴퓨터 과목을 신규과목으로 신설하였다. 김정숙 관련 교과를 살펴보면, 인민학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고등중학교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교과이다. 이들 교과는 인민학교 전학년에서 주당 1시간, 고등중학교에는 4, 5, 6학년에

166) 윤종진, “김정일 등장이후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분석,” 『통일정책연구』 (13권2호, 2004), pp. 173-174.

167) 위의 논문, pp. 173-174.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¹⁶⁸⁾ 또 북한인민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을 수령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찬양하고 있다.

은 겨레의 염원에 받들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영도자께서 계시어 이북민중은 민족사에 융성과 번영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으며 통일조국과 후손만대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를 민족자주위업의 영수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 안은 수령복이 아닐 수 없다.¹⁶⁹⁾

북한은 또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모든 곳을 혁명사적지¹⁷⁰⁾로 지정하여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고 있으며, 그밖에 노동신문이나 방송, 텔레비전, 심지어 영화와 음악, 무용 등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수령 우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⁷¹⁾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북한처럼 국가 원수를 우상화, 개인 숭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원래 우상이란 “참된 것이 아닌 다른 모습, 또는 중간에 게재하는 것”¹⁷²⁾을 뜻하며, 우상화란 “우상으로 뒀”, 또는 “우상적인 것으로 만듦”을 의미한다.¹⁷³⁾ 다시 말해서 우상화란 진실이 어떤 것에 장애에 의해 가리워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우상화의 극단적인 양태가 신격화이며, 이는 인간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형태를 말한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은 비범성 혹은 초인간적 우월성을 가지는 거의 절대적 존재로 신격화하여 받드는 개인숭배(cult of personality)를 하고 있다.

168) 위의 논문, pp. 173-174.

169) 김남진외,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동방사, 1995), p. 36.

170) <혁명사적지>는 김일성은 물론 김정일 및 그의 가계 인물들의 혁명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것인 반면 <혁명전적지>은 <혁명사적지>의 한 형태로 주로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것을 말한다.

171) 黃長燁,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서울: 月刊朝鮮社, 2001), p. 82.

172) 『민중에센스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1992), p. 1631.

173) 『원색 세계백과사전 전32권』(서울: 한국교육문화사, 1994), p. 387.

전근대적 봉건주의체제에서나 종교단체에서 볼 수 있는 이상화·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체제¹⁷⁴⁾는 우민화정책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을 수령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신민형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¹⁷⁵⁾ 그것도 모자라 김일성은 자기의 가계, 처,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상화하여 자신과 가계를 숭배하도록 해놓았다.

3. 계급투쟁의식 고취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¹⁷⁶⁾라고 밝힌 것처럼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계급투쟁,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투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적대계급인 자산계급에 대해 미움과 증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타나 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노동 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입장에 튼튼히 서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수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 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가 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⁷⁷⁾

이는 결국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계급간의 투쟁, 애국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 등 사회와 세계를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으로 간주하고, 적대적

174)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북한사회를 현대판 봉건주의 獨裁體制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7. 9. 24.

17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 125.

176) K.마르크스·F. 엥겔스, 김재기편역,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서울: 거름, 1988), p. 48.

177) 김동규, 앞의 책, p. 488.

계급에 대해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도 대립되는 계급이나 국가에 대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심리학적으로 볼 때, 조국(북한)애를 강화시키려면 상대적으로 증오의 대상을 설정하고 적대적 목표물에 대한 지독한 비판과 증오심을 갖게 하면 할수록 자신의 소속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이 강화된다는 논리에서이다. 따라서 증오의 대상으로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각급 학교의 각 교과목에 하나의 필수 요건으로 책정돼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 북한에서 반미, 반남의식을 고취시키는 교과서 내용의 일부이다.

미제 승냥이

일제원썹놈들이 우리나라에 기여들어 주인노릇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명섭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열한 살의 어린 나이 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매일 산에 가서 땀나무를 해왔습니다.

이날도 명섭이는 제 키보다 더 큰 지게에 나무를 한짐 해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섭이가 허시몬이란 미제놈의 사과 받을 지날 때 였습니다.

갑자기 우수수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새빨간 사과 한알이 딱 떨어져 울타리 밖으로 굴러 나왔습니다.

《야, 사과!》

명섭이는 그 것으로 달려가 사과를 집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울타리 곁을 지나던 허시몬놈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놈은 말처럼 크고 사과처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 놓았습니다. 사냥개는 사정없이 어린 명섭이를 물러 뜯었습니다.

명섭이는 말처럼 크고 사자처럼 사나운 사냥개를 풀어 놓았습니다. 사냥개는 사정없이 어린 명섭이를 물어뜯었습니다.

명섭이는 작대기로 사냥개를 힘껏 내리 쳤습니다. 사냥개는 주춤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시몬놈이 명섭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놈은 명섭이

를 사과나무에 꿩꿩 묶어 놓고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청강수 방울이 이마에 닿을 때마다 뿌직 뿌직 살이 타들어 갔습니다. 명섭이는 한참동안 몸부림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이 소식을 듣고 명섭이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명섭아!》

어머니는 명섭이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상처자국에는 뺨건 피가 흘러내렸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한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제 승냥이 놈을 때려부시자!》

마을 사람들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허시몬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놈의 집에 숨어 있는 미제놈을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¹⁷⁸⁾

그날은 오리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막고 나서고 있습니다. 놈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대화들을 파탄시키고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악랄하게 탄압해 나서고 있습니다.¹⁷⁹⁾

또 『대학생』이라는 1981년 7월호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원썩을 끝없이 미워하도록

남포사범대학을 찾아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
- 178) 『국어(인민학교 제2학년용)』(평양: 교육도서 출판사, 1985), pp. 65-67; 김동규, “북한교육의 기본원리와 이질화 현상,” 『北韓研究(제2권 제2호)』(서울: 대륙연구소, 1991), p. 28 재인용.
179) 북한고등중학교 3학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혁명활동> 제23과(한상유외, 2001), p. 43의 내용일부, 김동규, 앞의 논문(2004), p. 156 재인용.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우리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당 조직들은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인민이 겪은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제국주의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여 온갖 계급적 원수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180)

남조선청소년들이 퇴폐적인 정서풍조로 하여 령기적인 모험과 순간의 쾌감을 추구하여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알콜중독과 마약중독, 매음과 강간, 살인행위와 같은 것은 퇴폐적 풍조의 산물이다.181)

외세와 매국반역자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찬란한 민족문화와 전통이 심히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있다. 민족성이 여지없이 말살되고 사회생활의 전반에서 민족적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암흑의 땅 남조선이다.182)

썩어빠진 부르쥬아식 사랑관에 물젖어 가정을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 청년 남녀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다. 이에 따라……리혼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 현실은 극도의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에 기초한 부르쥬아사상문화야 말로 사회를 타락시키는 마약과 같다.183)

이와 같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어릴 때부터 아동들에게 증오심을 주입 시킴으로서 무조건적 애국주의 사상과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80) 『대학생』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1년 7월호), 김동규, 위의 논문, pp. 29 재인용.

181) 고수길, “청소년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 『주체의 나라6』 (평양: 평양출판사 편, 1991), pp. 139-140.

182) 『천리마』 제5호(평양: 천리마사, 1999), p. 61.

183) 『천리마』 제9호(평양: 천리마사, 2000), p. 59.

4. 집단주의정신 원칙 강조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는 집단주의는 마르크스-레닌의 정치사상적 교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집단주의적 교육체제의 확립과 그 효율적 운용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위한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집단주의교육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모든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려는 정치교육의 작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¹⁸⁴⁾

이는 북한 헌법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도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¹⁸⁵⁾”라며 집단주의 교육을 통하여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이익,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수령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희생정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집단주의는 오직 개인을 위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승냥이 법칙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주성을 존중하며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의 기초에 놓여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도덕이다.”¹⁸⁶⁾라고 평가하면서, 집단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84) 李中, “集團主義의 教育體制: 그 規範과 運用,” 고현옥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p. 280.

185) 김형찬,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490.

186)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154.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여 상호경쟁을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리로 삼고 있다면, 공산주의 사회의 가치관은 전체적인 평등을 지표로 삼고 상호협동으로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경제의 기본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성과 평등성에는 집단주의 정신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교육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협동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주의의 원리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¹⁸⁷⁾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의 생활환경과 교육의 목적, 내용과 방법 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사회주의교육에서의 집단주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 ... 사회주의 사회는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사회적 생산과 생활이 조직화되어 있고 매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전사회의 이익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개인의 이익을 사회와 전체인민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전체의 몫 가운데 자기의 몫도 있다는 집단주의사상과 자기 개인의 모든 생활과 활동을 오직 사회의 통일적인 활동에 복종시킬 줄 아는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¹⁸⁸⁾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주민 생활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사회적으로 양육되며, 소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선소년단’, 생활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이 그것이다. 북한청소년에게 있어 학습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무적 조직생활이다.

187) 김동규, 앞의 책, p. 22.

188) 김수득,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그 수행방도에 관한 령도적 지침,” 「로동신문」, 1970. 5. 16; 李中, 앞의 논문, p. 289 재인용.

북한은 집단주의교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숙지시키며,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는 곧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 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만을 의식하게 하며,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만을 인식토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

북한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하는 데에서 비로소 존재 의의 내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당의 정치적 후비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로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중요한 공산주의적 시책”이라고 한다.¹⁹⁰⁾ 이와 같이, 북한의 교육목적은 집단주의 인간, 즉 개인을 버리고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주의적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에서 강조되는 집단주의는 학교교육에서는 물론 사회단체 조직생활, 문화예술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유로운 개성의 존중,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 등은 생각하기 어렵다.

요컨대, 북한은 우리와 달리 분단이후 봉건시대 왕조처럼 부자세습은 있었으나 엄밀한 의미의 정권교체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정치교육도 일관되게 추진해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북한 정치교육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람직한 인간상은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었으나 점차 유일사상체제로 전화되어 가면서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189) 임순희, 앞의 책, p. 35.

190) 위의 책, p. 36.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는 다름 아닌 오로지 ‘수령에 충실한 혁명전사’를 말하는 것으로 김일성·김정일에게 절대 충성하는 인간을 말한다. 결국 북한은 끊임없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주민들을 체제에 순응하는 신민형(臣民形)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김부자 일가의 우상화와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도구로 전략한 북한의 정치교육은 북한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고 있지 않다. 진실이 아닌 거짓에 토대를 두고 있는 북한의 정치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정착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¹⁹¹⁾

191)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의 교사논총 제25집 2호』(2004), pp. 178-179.

제6장 결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남북한 분단이후 북한정권이 실시한 정치사회화와 정치사상교육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모든 교육이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북한주민들이 어느 사회에 가도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愚民)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폐쇄된 교육을 받아 온 북한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이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남북한 사회통합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통일이 서독인의 동독주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볼 때, 정책수행에 있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북한 붕괴에 관한 보도가 빈번한 것은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우리의 경제력이 나아진 다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 통일이 전혀 예기치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의 통일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이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민족부흥의 역사가 될 지, 아니면 남북한이 다 함께 몰락하는 재앙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부터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통일을 준비하면, 비록 당장은 어려움을 지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 통일은 우리민족의 축복이 될 것이다. 통일을 잘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사회와 북한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현재 남한에는 1만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있으며, 이들의 신변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한 사회통합 시 야기될 각종 사회적 문제도 1차적으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몫이다. 결국 현재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관리와 통일한국의 안정적 치안유지를 위

해서도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이해력을 계속해서 제고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면. 『북한에서 바라 본 북한』.서울: 증명출판사. 2005..
- 김현성,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연구』.용인: 치안연구소. 1998.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서울: 통일연구원, 2000.
- ,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동규. 『社會主義 敎育學』.서울: 主流,1988.
-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6.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비평사. 2000.
- 조용관·김병로. 『북한한걸음 다가서기』.서울: 예수전도단. 2002.
- 조용관., 『중국혁명과 가정윤리』.서울: 고려원. 1998.
- 민성길·전우택·윤덕용. 『탈북자와 통일준비』.서울: 연세대출판부. 2002.
- 이우영. 『북한사회의 상징체계연구:혁명구호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서재진. 『또 하나의 사회』.서울: 나남출판사. 1995.
-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3.
- 김형찬편. 『북한의 교육』.서울: 을유문화사. 1990.
- 최완규 엮음. 『북한의국가성격변용에 관한연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선한승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전우택, 『사람의 통을 위하여』. 오름: 2000.
- 이금순외.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통일연구원: 2004.
- 김충남.,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서울: 법문사. 1982.
- 차종환. 『북한의 교육정책과 명문대학』.서울: 평화문제연구소 . 2002.
- 임순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영주·이범수.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서울: 한울., 1994.
- ,-----, 『현대북한 언론의 이해』.서울: 한울. 1999.
- 조영아.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정국용. 『통일전 기독교육 준비와 통일후 기독교 교육』.서울: 천안대학교 기독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최준영. 『북한소학교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 분석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연구』. 성남: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 심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상)”, 『북한』. ‘97년 11월호.
-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 이계희. “北韓의 思想政策과 政治教育”, 『統一問題研究』. 국토통일원. 1989.봄.
-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 . “북한체제 특이성의 역사문화적 가능조건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 교조화와 우상화·세습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제6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2.
- 손기웅,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북한연구학회보(창간호)』. 북한연구학회. 1997.
- 김영수. “김정일 시대의현황과 전망”.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8.
- 박문갑. 『北韓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신광민. 『북한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창희. 『북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8.
- 김석향. 『남북한 주민간 갈등 양상과 기도교인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기독교북한선교회. 2006.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통일정책연구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서울: 하우스중앙. 2005.
-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자료집)』. 한국사회학회. 2006.
- 유안진.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이범웅.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교육적응실태 연구,”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정책」. 인천: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0.
- 통일부. 2006년 국감자료(사회교류문화본부)<http://www.unikorea.go.kr/index.jsp>(검색일

2006. 12. 17).

『백과사전 제3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책임연구보고서 2006-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이해

2006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